

금주의 기도



죄악에 물든 우리를 구원하시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물질문명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그 구속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더 부흥하고 발전하여 구원받은 자들을 날로 더해갈 수 있도록 모든 교회 지체들이 열심히 기도하며 나가기에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금주의 말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2장 46-47절)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www.chpress.net

주후 2017년 2월 11일 (토) 제 1621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교회 확장, 불신자 전도하고 교인을 제자 만든다!

바나리서치, 교회 성장/확장 통한 10가지 유익 소개

사도행전 2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교회’의 탄생과 성장은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으로 굳건했고 지역 사회와 이웃에게 어떻게 전도했는지를 보여준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행2:47)라며 교회의 성장과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교회 성장 모델은 수 세기 동안에 계속해서 더욱 발전돼 현재는 단일 대형교회나 방송으로 중계되는 설교를 듣는 캠퍼스 교회를 그리고 갈보리채플처럼 단일 교회 이름 또는 브랜드를 가진 지역교회 등

다양한 형태로 교회 성장을 이루고 있다.

바나리서치는 코너스톤 네트워크와 함께 2015년부터 2016년까지 교회성장을 이룬 목회자들이나 교회성장 컨설턴트 222명들을 대상으로 심층적인 전화 인터뷰를 통해, 교회 개척 모델들, 성장 유형 그리고 성장하는 이유들에 대해 설문해 다음과 같은 10가지 중요한 포인트들을 발표했다(Ten Lessons of Church Expansion).

이번 설문 결과의 오차율은 +/- 6.6% 신뢰도는 95%다.

비해 어려웠다.

설문에 참가한 목회자들 중 극소수만이 교회 확장이 기대했던 것에 비해 수월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1/3은 정말로 힘들고 어려웠다고 응답한다. 특히 2개 이상의 다중 지역들에서 교회 확장을 이루기에는 철저한 전략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즉 5, 6, 그리고 더 이상의 장소들에서 확장을 이루는 데는 서로간의 협력과 함께 일관성을 유지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따라서 4개 이상 서로 다른 장소에서 교회 개척이나 확장이 이루어지면 엄청난 부담과 함께 복잡해진다는 점은 분명했다.

4. 교회 확장 실패 이유들

교회 성장/확장이 항상 성공을 이루지는 않았다. 때때로 모교회는 캠퍼스교회를 접어야 했고, 분리시켜야만 했다. 다시 말해서 1/5 즉 20% 정도의 목회자들은 교회 문을 닫거나 분리시켜야 했던 경험들을 털어놓았다. 그 이유 중 단연코 우선순위는 바로 저조한 출석율이었다. 무려 82%가 응답했다.

이외에도, 리더십 문제나 도전(32%), 재정적 문제들(캠퍼스교회는 유지비용이 많이 들며(29%),사이트교회는 저조한 헌금(21%))이 결국 직면하게 되는 도전들이었다. 그리고 모교회가 캠퍼스 교회와 분리나 결별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주로 캠퍼스가 보내 준 모교회의 비전과 다른 비전을 갖게 될 때였다(35%). 그러나 결별과 분리는 반대로 또 다른 성공(?)을 보여준다. 즉 모교회에서 분리된 캠퍼스 중 48%는 자립하게 됐고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3면으로 계속)

1. 교회 성장/확장은 다양한 형태를 보인다.

교회 성장 또는 교회 복제의 전략들과 모델들은 굉장히 다양해서도 독특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공동체의 진정한 다양성을 보여준다. 모든 교회와 캠퍼스는 각자 독특한 설립 배경과 모델 그리고 전략들을 가지고 있다. 바로 지역사회에서 처한 상황과 이에 따른 선교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설문에 참여한 목회자들과 컨설턴트들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5가지 유형으로 정리할 수 있다:

△다중지역 비기너(Multisite Beginner): 17%의 목회자들이 2-3개 서로 다른 장소들에 단일교회를 가지고 있다.

△개척 비기너(Plating Beginner): 21%의 목회자들이 2-3개의 반-독립교회를 목회하며 지교회들을 개척하고 있다.

△다중 전략가(Multisite Strategist): 24%의 목회자들이 4개 이상 지역들이나 캠퍼스들에서 단일 교회 체제를 유지한다.

△개척 전략가(Planting Strategist): 20%의 목회자들이 4



교회 확장을 위한 주된 목표는 불신자를 전도하고 신자들은 제자로 양육하는 것이다

개 이상의 반-독립 교회들에서 사역하며 지교회를 개척한다.

△장소 동반자(Location Partner): 18%의 목회자들이 분리된 회중들을 그리고 사역 리소스들을 다른 교회들과 공유한다.

2. 지역적 아웃리치, 선교 그리고 교회 확장을 위한 소명

교회 성장/확장을 위한 동기 부여는 바로 지역적 아웃리치, 선교 그리고 소명이었다. 성장에 따른 장

소나 공간의 제한이나 협소 또는 교회 성장에 따른 확장은 부차적인 이유였고, 무엇보다도 앞에서 언급한 5개 유형 교회 확장 모델들은 무엇보다도 교회가 속한 도시나 지역에 효과적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교회 확장을 결행한 것이었다. 그리고 교회의 선교 명령과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확장을 명령하시기에 시행했다고 응답했다.

3. 교회 확장은 기대했던 것에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온라인으로 공부합니다”

학 사: 성서학과, 기독교상담학과
석 사: 목회학과 (M.Div), 신학과, 기독교상담학과
박 사: 목회학과 (D.Min)
수료증: 가정상담 사역자, 유아교육 교사/원장

ATS 정회원

월드미션대학교 온라인 프로그램

www.wmu.edu

 월드미션대학교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admissions@wmu.edu, 213) 388-1000



2면

두려움의 정치학,
심리적으로 풀어본다!



7면

한국 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손상웅 목사



8면

청교도신앙
이윤석 목사



14면

살롱의 교육학
이희갑 목사



16면

“공감” 통해 불신자들에게
다가간다!

아틀란타 연합장로교회

교회 부흥을 이끄는 시니어 사역 만들기

제1기

시니어 사역 전문가 훈련 학교

초 / 대 / 합 / 니 / 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사회 경제 문화 전체가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교회도 새로운 시니어 사역을 준비해야 할 시기입니다. 시니어분들을 단순히 Retire로 인생을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서 그리고 차세대를 위한 영적 멘토로서 선교적인 인생을 사실 수 있도록 Refreshing, Redirecting, Resourcing 하는 교회 사역 구조로 혁신할 때입니다. 아틀란타 연합장로교회 시니어 사역 위원회는 지난 10년 동안 섬겨온 시니어 사역의 경험과 프로그램을 토대로 ‘시니어 사역 전문가’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성원을 기원드립니다.

일 시: 2017. 3. 23(목) 오후2시 ~ 25(토) 오후 2시

장 소: 아틀란타 연합장로교회 (2534 Duluth Highway Duluth GA 30097)

문 의: 강은자 전도사 (404-771-9414) 김재홍 목사(678-665-9927)
happysenior@yahoo.com

등록비: \$50 (숙식 및 교재비 포함)



S (SPIRITUALITY)

영성으로 깊어지는 시니어

시니어 중보기도회, 일대일 제자 훈련, 주일 성경 공부, 시니어 컨퍼런스

E (ENRICHMENT)

지혜롭고 원숙한 시니어

시니어 행복대학, 시니어 예술 선교단
시니어 복지 사역, 시니어 리더십 훈련

N (NUTRITION)

건강하고 활동적인 시니어

파크 하이킹, 건강 세미나,
시니어 박람회

I (INTERGENERATION)

차세대를 세우는 시니어

7020 멘토링 나잇, 느헤미야 펀드

O (OUTREACH)

전도하고 선교하는 시니어

시니어 전도폭발팀, 시니어 단기 선교,
홈리스 사역, 지역 선교

R (RECREATION)

새롭게 발전하는 시니어

시니어 봄 가을 피크닉, 시니어 크루즈

S (SERVICES)

섬기는 리더십의 시니어

크리닝 봉사팀, 교회 안내팀,
교회 차량 라이드팀, 교통 안내팀



시론

예수 크라테오!



은희곤 목사
(참사랑교회)

호박벌을 보신 적이 있나요? 호박벌은 몸길이가 평균 2.5cm밖에 안 되는 작은 체구를 가졌다고 합니다. 몸통은 크고 뚱뚱한 데 비해 날개는 작고 가벼워서, 날기는커녕 떠 있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날수 없는 태생적 신체구조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호박벌이 꿀을 모으기 위해 하루에 약 200Km 이상 되는 천문학적인 먼 거리를 쉴 새 없이 날아다니는 신기한 곤충이랍니다. 호박벌은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비행을 할 수 있는 걸까? 곤충학자들의 연구 결과는 이렇습니다. 호박벌은 “신체구조상 날수 있을까?, 아마 못 날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지, 정작 호박벌은 자기가 날 수 있는지, 없는 지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합니다. 호박벌의 관심은 오직 하나!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하루에 200Km를 왔다갔다 하면서 꿀을 모으겠다는 목표만 있을 따름입니다. 그러기에 날기는커녕 떠 있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신체적 구조는 하루에 200Km를 날아 꿀을 모으겠다는 목표 아래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극복될 따름입니다.

이 호박벌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 은혜가 됐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나는 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이런저런 문제와 이유들이 장애물로 내 앞을 가로 막습니다. “나도 기회가 딱 한번만 찾아오면 대박 날수 있는데”, “나도 저 사람처럼 돈이 있거나 뒷배경이 있다면 성공할 수 있을 텐데”, “세상이 나를 안 도와줘도 너무 안 도와줘” 등등, 몸통은 크고 뚱뚱한 데 비해 날개는 작고 가벼워서 난 날수가 없어하며, 남의 탓, 환경 탓, “탓”만 하다 끝나는 우리를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인생들입니다. 미국의 자동차 왕 헨리 포드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의 장애물이란 목표지점에서 눈을 돌릴 때 나타나는 것이다. 인생의 목표에 눈을 고정하고 있다면 장애물은 보이지 않는다.” 우리들도 내 앞에 놓인 인생의 부정적인 이유와 문제를 바라본다면, 보이는 건 장애를 투성이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목표에 우리의 눈을 고정한다면 장애물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갖아야할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입니다. ‘크라테오(krateo)’는 ‘굳게 잡으라’는 말입니다. 무엇인가를 잡을 때 손에 힘을 주지 않습니까? 특별히 남에게 빼앗기지 않아야 될 소중한 것을 손에 쥐었을 때는 어느 때보다도 힘을 더 강하게 줍니다. 이렇듯 꼭 잡는 것이 크라테오!, “굳게 잡으라”입니다. 성경은 “믿음의 도리인 예수”를 이렇게 크라테오! 꼭 붙잡으라고 말합니다(히4:14). 우리가 믿음으로 그 예수를 놓치지 않고 바라보고 나간다면, 우리가 전념으로 예수 크라테오! 한다면, 내가 꼭 붙잡은 예수가, 내가 놓치지 않고 바라본 예수가 모든 역경과 환란을 뚫고 살 수 있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히4:16).

어떻게 하는 것이 이렇게 예수를 꼭 붙드는 예수 크라테오! 하는 것인가? 내 인생의 매순간 순간마다, 1)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정말 진지하게 물어야 합니다. 내 인생의 매순간 순간마다, 2)이 마음이, 이 생각이, 이 말이, 이 행동이, 이 일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일일까?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면 나도 좋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면 나도 마땅히 싫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하시면 내가 가고 싶은 아무리 영광의 길일지라도 가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가라하시면, 내가 가기 싫은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시면, 내가 아무리 하고 싶은 충동과 욕망이 있더라도 하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하라하시면, 내가 아무리 큰 손해를 볼지라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께서 내 주위를 운행하시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명하시는 만민의 축복과 형통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내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험과 유혹 속에서도 내가 꼭 붙잡고 놓치지 않은 예수가, 내가 조절 놓치지 않고 시선 고정하여 바라본 그 예수가 나에게 때를 따라 주시는 돕는 은혜로 승리케 하십니다.

예수 크라테오! 임마누엘 예수와 함께 가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입니다. 요즘 2-3명만 모여도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각국의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들로 연일 화제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예수쟁이”들은 세상의 가치나 문화에 휩쓸려가지 말고, 예수 크라테오! 예수 꼭 붙잡고, 그 잡은 손에 더욱더 힘을 주어 놓치지 말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목표로 삼아 때를 따라 주시는 돕는 은혜로, 믿음의 사람이 가야할 그 길을 흔들리지 말고 의연하게 가야 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갈급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십니다. 주님께서 만지십니다.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소망의 인생을 사시기를 기원합니다. pastor.eun@gmail.com

두려움의 정치학, 심리적으로 풀어본다!

Vox, 트럼프 대통령의 무슬림/난민 여행제한명령에 담긴 “외부인을 향한 두려움” 원인과 대안 제시

트럼프 대통령의 무슬림 7개 국가들에 여행 제한 조치로 인한 후 폭풍이 상당하다. 먼저 해당 무슬림이 과반수가 넘는 국가들에서는 미국인에게 비자와 입국을 불허하고 IS를 격퇴하는 연합전선에서 탈퇴하겠다고 맞불을 놓고 있다. 구글, 애플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 역시 이번 행정명령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 미국 시민들 역시 연대를 통해 미 전역 공항에서 시위와 함께 법원에 타당성 여부를 가리는 소송을 제소했기 때문이다.

“복스(Vox)”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무슬림 이민자나 시리아 난민들에 대한 여행 제한 행정명령을 가동시키는 근본적인 이유로 “두려움”을 제시한다.

지난 2015년 파리 테러와 지난해 브뤼셀 테러 이후 도널드 트럼프 당시 공화당 경선 후보는 무슬림이 다수인 국가로의 여행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의 지지자들은 환호했다. 지난해 3월 브뤼셀 테러 이후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공화당 지지자의 71%는 무슬림의 입국을 금지하는 정책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무슬림 이민자나 시리아 난민을 향한 두려움에 논리적인 근거를 대기는 어렵다. 이민자나 난민에 대한 두려움은 다분히 감정적인 반응의 산물이다. 그리고 이런 감정은 특히나 정치인들의 선동에 쉽게 요동친다. 따라서 심리학적으로 명쾌하게 두려움이 어디서 오는지, 여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관해 “복스”는 7가지로 분석했다(7 lessons from psychology that explain the irrational fear of outsiders: Fear of refugees and immigrants is emotional. That's what makes it so powerful).

1. 인류는 오래전부터 외부인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살아왔다.

이민자가 있는 나라에는 외국인 공포증(xenophobia)이 꼭 있기 마련이다. 우리(us)가 아니라 우리와 다른 남(them, 혹은 저들)이라고 인식하게 되는 사람에게 좀처럼 믿음을 주지 못하는 건 우리의 본능이기도 하다. 선사시대에는 내 집단의 안전을 지



가 내 친구인지 아닌지 분명한 딱지를 붙여놓으려는 집착이 강해지기도 한다.

“친구를 가르는 경계를 더 명확하게 그리고 싶어지죠. 누구를 신뢰하거나 내가 가진 무언가를 나누려 할 때 친구가 아닌 사람에게 실수로 호의를 베풀지 않으려는 생각이 강해지거든요. 또한, 자기 집단 구성원들과 더 많이 공감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속하지 않은 집단에 더 공격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큼니다.”

내집단에 대한 자부심이 강해지면 외집단에 대한 두려움도 같이 자라난다.

3. 외부인을 향한 두려움은 외부인을 실제보다 더 위험한 집단으로 인식하게 한다.

2012년 반 바벨과 그의 동료 제니 샤오가 발표한 논문이 내용이 잘 정리돼 있다.

실험은 간단했다. 실험 참가자들에게 뉴욕에서 멕시코시티까지 직선거리가 얼마나 될지 추정해보라고 했다. 멕시코 이민자들을 향해 적대적인 태도를 보인

두려움은 적대감으로 표현...사실보다 극적 사례가 더 선명하게 각인

두려움에 좀더 긍정적 반응하도록 교육, 인지 재해석 기술 가르쳐야

키려면 이러한 본능에 충실해야 했다. 반면 현대 사회에서는 낯선 이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배타적인 편견을 키우는 자양분이 된다.

실험실에서 사람들을 서로 싸우게 하기는 너무나도 쉽다. 대부분 실험은 먼저 가상의 두 팀을 만든 뒤 사람들을 무작위로 각 팀에 배정한다.

“어려울 것 없어요. 기본적으로 상대방과 우리 편이 무언가를 두고 경쟁해야 한다는 상황만 만들어주면, 사람들은 마치 원래부터 뇌가 상대방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도록 설계된 것처럼 행동합니다.”

뉴욕대학교(NYU)의 심리학자 제이 반 바벨은 2013년 이렇게 말했다. 반 바벨은 보통 팀을 흥팀, 청팀 둘로 나누는데, 각 팀에 배정되자마자 실험 참가자들은 편향적인 인식을 드러낸다. 먼저 팀 동료들을 더 좋아하게 되고, 동료들의 얼굴을 바라보는 시간이 늘어남에, 동료들을 더 잘 기억하게 된다.

2. 두려움은 두려움의 대상을 멀찍한 인간이 아니라 괴물로 인식하게 한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시야를 흐린다.

사람의 심리라는 것은 코딩한 컴퓨터 프로그램과 같다고 생각해도 된다. 이 프로그램은 새로운 상황에 부딪혔을 때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는 명령을 내리기도 한다. 아기를 보면 불을 살짝 꼬집어주고 싶은 것처럼 낯선 이에 게서 위협을 느꼈을 때 위협에 맞서 싸우거나 위협으로부터 멀리 달아나고 싶은 건 본능적인 반응이다.

남을 두려워하면 다른 사람을 인식하는 방식도 변한다. 실험에서 이런 변화는 충격적일 만큼 노골적으로 나타난다. 몇몇 실험에서 심리학자들은 실험 참가자들에게 “외부인(outsiders)”이 사람의 조건을 얼마나

갇췄는지 평가하게 했는데, 사람들은 우리가 아닌 남에게서 평범한 인간성을 잘 보지 못했다.

하버드대학교의 심리학자 미나 시카라는 지난해 인터뷰에서 “과잉 배제 편향(over-exclusion bias)”이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누군가를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내가 친구라고 여기는 집단의 범위도 좁아진다.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친구가 아닌 사람에게는 공감할 일도 잘 안 생기고, 그 사람을 도와줄 이유도 점점 줄어든다. 또한, 점점 마음속에서 누군

사람들은 멕시코시티가 실제로 다 뉴욕에 더 가까이 있다고 생각했다. 이후 반바벨은 사람들이 두 나라 사이에 튼튼한 장벽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런 두려움이 빛은 편견이 사라진다는 데이터 연구를 발견했다.

4. 실제 사실이나 통계 수치보다 외부인의 위협을 보여주는 극적인 사례 하나가 사람들의 뇌리에 훨씬 선명하게 각인된다.

(3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A. Office

·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 Tel:(323)665-0009(대 표) (323)665-9025(광고국)
· Fax(323)665-0056(편집국) (323)665-0046(광고국)
· E-mail : lachpress@gmail.com

■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준

■ 편집국장:유원정

·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 Tel:(718)886-4400(대표) (718)886-4424(편집국)
· Fax(718)886-0074(대표)
· E-mail : nyhpress@g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2017년 봄학기 학생모집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ESL Program

Bachelor Degree Programs

Master Degree Programs

Doctoral Degree Programs

Business Administration, Music, Theology (Biblical Studies, Christian Education)

Counseling, Education, Music, TESO, M.Div, MBA

Doctor of Music, Doctor of Leadership, Doctor of Ministry (Christian Counseling, Christian Education, Mission Studies, Pastoral Theology)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1. On Campus 강의: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

2. On-Line방법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학위취득 가능

3. Blended 강의: 소집강의와 On-Line 교육을 병행하면서 학점취득 가능

J-1 VISA

EXCHANGE VISITOR PROGRAM

미국 국무성으로부터 J-1 Visa Sponsor 허가

1. Exchange visitor Professor and Research Scholar Programs 교환교수, 연구원, 선교사

2. Exchange visitor College and University Students Internship Programs 대학생 교환학생 인턴십 프로그램

Midwest University는 미국 연방정부 국무성으로부터 교환교수, 연구원, 교환학생을 위한 J-1 Visa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스폰서로 지정 받았습니 다.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대학교수와 각 기관의 연구원, 선교사님들은 안식년 동안 본교에 와서 연구나 강의를 할 수 있으며, 대학 또는 대학원 재학생은 교환학생으로 본교에 와서 학점을 취득 하면서 동시에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노동허가를 받아 인턴으로 미국의 현장 경험을 쌓을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J비자 프로그램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메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jvisa@midwest.edu)

본교는 미국대학학력인가기관(CHEA), 미연방정부교육부(USED), ABHE로부터 학사, 석사, 박사 학위과정을 인가받은 대학교입니다.

문의: 전화 (636)327-4645, 이메일 usa@midwest.edu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Washington DC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5103-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Tel: (636)327-4645 / Fax: (636)327-4715

Tel: (571) 730-4750 / Fax: (571) 730-4751

E-mail: usa@midwest.edu

E-mail: wdc@midwest.edu

교회 확장, 불신자 전도하고 교인을 제자 만든다

(1면에서 계속)

5. 교회 브랜드 문제들

교회 개척과 소위 말하는 “멀티 사이트교회”가 뚜렷하게 분리되는 점은 바로 후자의 경우, 모교회의 이름이나 정체성을 유지하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멀티사이트교회들은 모교회와 끈끈한 유대를 가지는 반면, 개척교회들은 독립적인 경향들을 보여준다. 좀 더 부연하자면, 멀티사이트교회들은 모교회의 이름이 갖는 유익 즉 지명도나 유명세 덕분에 초신자들이 많이 오게 되고(52%), 개척교회들은 지역사회의 요구들을 교회 사역에 반영하면서(58%) 동시에 교회의 소유권에 혜택을 보게 된다(72%)고, 설문에 응한 목회자들은 말하고 있다.

6. 교회 확장은 지역사회에 교회 리더십에 유익들을 준다

설문에 응한 목회자 중 과반수 이상은 개척교회나 캠퍼스가 주변 커뮤니티에 유익들을 준다고 응답했다. 게다가 1/3의 목회자들은 개척교회 시도 자체가 회중에게 새로운 활력을 제공해준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서, 교회나 캠퍼스 설립 자체가 교인들로 하여금 선교에 대한 사명감 고취와 함께 주인 정신을 심어줘 궁극적으로는 평신도리더십이 함양돼 전반적으로 온 회중에 새롭게 되

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다.

특히 개척교회 모델을 시도하는 목회자들은 평신도들에게 더욱 많은 리더십 개발과 선교 모델을 훈련할 수 있는 기회들이, 개척 교회를 통해 창출된다고 응답했다.



7. 교회 확장은 리더십 기술의 틈을 보여준다

리더십은 교회 성장이나 확장 속도를 유지하는 결정적인 요소다. 전체적으로 목회자들과의 심층적인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 즉 얼마나 목회자가 교회개척이나 캠퍼스 시도를 열망하는지가 관심이 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교회 성장이나 확장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그 반대로 부정적인 영향들 즉 리더십의 차이(23%), 부교역자나 스태프들과 평신도에게 부과되는 부담들(12%)이 거론되게 된다.

8. 교회 부대시설들의 우선순위 문제

대부분의 교회 리더들은 개척이나 캠퍼스를 설립하고자하는 지역사회에 대한 자신들의 선교적 열정과 소명에는 확신을 가진다. 그러나 지역사회의 요구를 충

족시키기 위해서는 교회가 분당 즉 예배 공간만을 가지고는 힘들어진다. 따라서 바나는 재정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우선적으로 구비돼야 할 교회 부대시설들을 설문했다. 그 결과, 교회 확장에서 빠져서는 안되는 문제로 바로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한 사역과 프로그램들이었다.

9. 교회 개척 모델들은 자금자족이다

교회 성장/확장을 위해서는 충분한 전략적 준비들과 함께 예산 마련이 근본이 된다. 그런데 교회 개척은 대부분 자립적 재정 기반을 구축하게 된다는 특성을 보여

준다. 즉 성장으로 인해 헌금이 증가되면, 자연스럽게 증가되는 경상유지 비용들을 충당하게 되기 때문이다. 개척 모델 중 75%는 이러한 재정 방식에 의존하고 있었다. 그리고 48%는 경상비용에서 어느 정도를 따로 할당해 계속 진행되는 성장세를 대비하는 예산을 모으고 있었다.

10. 확장은 결국 새로운 성장을 만들어낸다

응답자 중 30%는 교회 개척이나 캠퍼스 시작이 교회 성장을 이뤘고, 20%는 성장 속도가 더욱 가속됐다고 말한다. 그리고 40%는 새로운 교회 개척이나 캠퍼스가 모교회에서는 조금은 힘든 불신자들에 대한 전도나 선교가 탄력을 받게 된다고 응답했다. 따라서 기존 장소에서 성장을 기다리기보다는 다양한 지역들에 교회 개척이나 캠퍼스를 시작하게 되는 동력이 된다. 왜냐하면 새로운 장소에서의 개척이나 캠퍼스는 기존 교인들의 수평 이동이 아닌 불신자들을 교회공동체로 불러모을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숫자적인 성장을 넘어서, 기존 교인들 즉 교회를 개척하고 캠퍼스를 시작한 교인들의 영적 성장에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많은 교회공동체들에서는 개척과 캠퍼스 시도가 바로 제자훈련을 증가시키는 지름길이라고 알고 있다.

반문합니다.”

인구구조의 변화를 언급하는 것만으로 도널드 트럼프의 지지율이 높아졌다는 최근의 실험 결과도 있다. 이를 두고 모든 백인이 마음속 깊은 곳에는 백인우월주의나 다른 인종에 대한 적대감을 숨겨둔 채 살아간다는 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대신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정치인이 너무나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도구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두려움은 우리가 생각하기도 전에 먼저 나타나는 반응이자 감정이다. 사람은 일단 감정과 반응에 따라 행동하게 된다. 누군가 지금 내가 가진 두려움을, 그 두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을 짚 해결해주겠노라 말하는 사람을 한 번 믿어보게 되는 것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일이다.

6. 두려움에 좀 더 긍정적인 반응을 하도록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난민을 향한 부정적인 시선과 두려움은 합리적인 사고의 결과라기보다는 감정

적인 반응에 가깝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두려움을 해소하는데 통계를 수치나 논리적인 반론은 별 소용이 없다고 말한다.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려면 “난민은 위험한 존재”라는 부정적인 마음의 소리를 줄이거나, “난민도 우리랑 다를 바 없는 사람이고 무엇보다 도움의 손길을 보내야 할 대상”이라는 긍정적인 마음의 소리를 높여야 한다.

시카라는 “심리과학”에 실린 대단히 흥미로운 논문 한 편을 예로 들었다. 우리와 남을 명확히 나눠 결정을 내림으로써 촉발되는 부정적인 감정을 억제하거나 줄이는 방법을 실제로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논문이다.

이스라엘 연구진은 실험 참가자를 절반으로 나눠 한쪽에는 인지 재해석(cognitive reappraisal)이라는 기술을 가르쳤다. 인지 재해석이란 쉽게 말해 마음속에 부정적인 감정이 떠오르면 감정의 기원과 배경 등을 꼼꼼히 따져본 뒤 이를 물리치는 기술이다.

(8면으로 계속)

목회 제언



김상덕 목사 (복음장로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을 통하여 흐르게 하라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생명의 씨앗을 뿌리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내신 것이다.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이 우리 삶에 뿌려지는 씨앗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불행하게 하는 가라지를 뿌리지 말고 좋은 것을 뿌리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므로 나의 인생에서도 거룩한 생명의 것을 거두고, 또 이웃들이 나로 하여금 영생의 알곡을 거두게 하는 복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사람이다. 그러므로 나에게서 주님의 것이 나타나게 하여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에 충성하는 것이다. 목회 현장에서 주님의 것이 나타나게 하여야 하는 것이 거룩한 사명임을 알고 수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다.

설교 시간은 나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더구나 세상의 것을 알리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에게서 시작하신 그 말씀이 내 입에서 흘러 나타나게 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 말씀만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신령한 양식이기 때문이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필요하다. 세상 사람의 입에서 죄악이 흐르고 있다. 강물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사망의 물이 흐르는 것이다. 이러한 죽음의 바다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생명의 말씀이 흘러 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야 세상이 희망이 있는 것이다. 그 가운데서 사는 영혼들이 살 수 있는 것이다.

사해를 향하여 흘러 들어가는 생수의 환상을 우리도 보아야 하는 것이다. 주님의 지체들의 입을 통하여 전능하신 주님의 말씀이 나타나게 하여야 한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성령으로부터 나오시는 것이다. 그 말씀이 나의 입을 통하여 흐르게 하여야 하는 것이다. 주님의 것이 흐르게 하는 것이 주인에게 충성하는 것이다. 우리 입은 거룩한 것이기에 일상적으로 거룩하게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다. 부정한 것이 흐르지 않게 하여야 하는 것이다. 우리의 입은 주님의 피로 구별하신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오늘날 사람의 입에서 가라지만 뿌려지고 있다. 그러므로 환경은 죄악이 가득하게 되고 우리 환경과 우리 사람의 마음의 환경이 메마르고

굳어지고 삶에 죄의 도성으로 변하여지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나와야 하는 것이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지 못하게 하고 있는지를 알고 회개 하여야 할 것이다. 교회가 이 사명에 충실하여야 하는데 교회가 깨어나기 위하여 목회자가 깨어 생명의 말이 흘러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이 소성함을 받게 하여야 할 것이다.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다. 즉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종이 질대로 있어야 하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그 사명을 받아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흘러 시간과 환경에 스며들어야 하는 것이다. 사망의 말의 홍수가 가득한 이 땅에 생명의 말씀이 뿌려지게 하여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만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어 내 백성이 마시게 하리라 하셨다.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의 입을 통하여 말씀이 흐르게 되는 것이다. 영적 기근이 심할 것을 일찍이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깨어서 생수가 흐르는 지체로서 사명을 충성하게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의 사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근원이 되어 시작한 그 말씀이 지체를 통하여 흘러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여 그 말씀이 뿌려지게 하여 말씀의 내용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야 하는 것이다.

목회자의 충성은 우리 주님의 것이 흘러 나타나게 하는 것이다. 그 말씀이 흘러나게 하여야 하고 그 생명이 흐르게 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목이 마른 자들이 입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실 수 있게 되어야 하는 것이다.

말씀이 충만하게 흐르기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하여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영광이요 복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풍성하게 흐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우리의 사명에 새해 더욱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아멘.

sangdkim@yahoo.com

두려움의 정치학, 심리적으로 풀어본다!

(2면에서 계속)

우리 뇌는 항상 주변에 어떤 위협이 도사리고 있지 않은지 단 한 순간도 경계를 게을리 하지 않는다. 이민자가 일으킨 범죄, 이민자 때문에 일자리를 잃은 내 이웃에 관한 이야기가 유난히 뇌리에 오래 남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민자들이 새로 정착한 나라에 충성을 다하지 않는다, 애국심이 부족하다는 주장이 사실관계를 따져볼 겨를도 주지 않고 폭발적으로 퍼져 나가는 이유도 비슷하다.

“사려 하나만 있으면 말 그대로 끝이예요. 사람들은 그 사려 하나에 반응해 이내 외부인을 배제하고 적으로 돌리게 되죠. 데이터 분석이나 통계 수치는 추상적이에요.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 못하죠. 반면 두드러지는 사려 하나만은 확실하죠.”

주어진 정보를 처리하고 분석하는 시간을 아끼려는 방향으로의 진화를 통해 형성된 일종의 ‘생각의 지름길’을 휴리스틱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오늘날 휴리스

틱 때문에 우리는 엉뚱한 결론에 이르기도 한다.

5. 외부인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인구구조 변화 곡선을 토대로 미래를 예측했을 때, 언젠가는 지금의 소수 인종이 다수 인종의 지위를 차지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들려주면 이를 들은 백인 대부분은 다른 인종에 덜 친절할 태도를 보인다.

연구진은 인구구조의 변화를 생각하면 자연스레 인종 간 일종의 체로섬 게임을 연상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체로섬 게임 아래서는) 소수인종이 늘어난다는 건 다수인종이 그만큼 기득권을 잃는다는 뜻이 된다. 인종적 편견을 연구하는 제니퍼 리치슨은 말한다.

“자신은 합리적이고 편향되지 않았으며, 심지어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이처럼 소수 인종의 성장, 증가가 결국은 위협이라는 건 명백한 사실 아니냐고

실천적 복음주의 신학의 새로운 물결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학위과정:

성경사역학철학박사 PhD / 목회학박사 DMin / 교육목회학박사 DEdMin / 목회학석사 MDiv

미남침례교단 6대 신학대학원 | 탁월한 교수진 | 저렴한 등록금 | 한국부 450명 재학 | HLC & ATS 정식인가 | 상시입학 | 100% 한국어 강의 | I-20 발행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한국부 사무실

이미경 간사 1-816-414-3754; ks@mbts.edu; www.mbts.edu





목양실에서...

노창수 목사

(남가주사랑의교회)



“교회를 다니지 마세요!”

교회를 다니지 말라? 이, 이, 이
게 도대체 무슨 황당한 소리입니
까? 가뜰이나 요즘 ‘가나안 성도’(
거꾸로 읽으면 교회 ‘안나가’)가 많
아서 교회 나오라고 열심히 전도
해도 모자랄 판에 교회를 다니지
말라니, 그것도 목사가? 못하는 소
리가 없네... 여러분, 저는 과연 맞
이 간 목사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는 무

엇인가요? ‘교회’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이죠? 웅
장한 빨간 벽돌 건물? 높은 첨탑에
걸린 붉은 네온 십자가? 화려한 가
운을 입은 목회자? 조직이나 교
파? 다양한 프로그램? 열심을 가
진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모인 곳?
우선 ‘교회’는 건물이나 장소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는 마
세요. 저는 교회 건물의 무가치성,

혹은 무용설 주장에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교회 건물은 필요합니
다. 또한 성도들이 믿음과 피땀 어
린 헌금으로 지어 봉헌한 교회 건
물을 우리는 귀하고 소중하게 여
기며 깨끗이 관리해야 합니다. 교
회 건물은 세상의 건물과 구별되
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하나
님의 나라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
용되어야 합니다.

제가 오래전 남미 선교를 갔을
때 일입니다. 현지 한인교회로부터
주일 저녁 설교를 부탁받고 본당
에 들어서는 순간 ‘이 교회는 틀림
없이 신발을 벗고 강대상에 올라
갈 것 같다’는 감이 왔습니다. 그리
고 제 예감이 딱 맞았습니다. 강대
상 앞에는 슬리퍼 두 켤레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회자용이고
다른 하나는 설교자용인 것 같아
서, 신고 있던 구두를 벗어 단정히
정리하고 슬리퍼를 신고 강대상에
올라갔습니다. 그날 구멍이 나거나
뒤꿈치가 닳은 양말을 신고 있지

않아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
다.

저는 교회 건물을 하나님께 예
배를 드리는 거룩한 장소로 여겨 ‘
성전’이라 부르고, 예수님을 사랑
하는 마음으로 아름답게 장식하고,
특히 강대상을 거룩한 곳으로
여기며 신발을 벗고 올라갔던 신
앙의 선조들의 마음이 너무 귀하
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모세가 하
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었듯이, 그
분들에게는 자신들의 신발을 벗고
거룩한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는 마음이 있었습니
다. 참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
야 할 신앙의 자세라고 여겨집니
다.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자세가 어느 순간부터 변질되어
종교적인 관습과 행위가 되는 것
이 문제입니다. 아름다운 전통이
외식적인 종교 행위가 되어 그들
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
는 잣대가 되고, 교회의 주인이 사

람이 되어가는 우를 범하게 되며,
웅장한 교회 건물이 우상화됨으로
자신을 가리켜 성전이라고 말씀하
신 예수님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게 되는 것
이 문제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
심을 입은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
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고
전1:2)이라고 말씀합니다. 고 옥한
존 목사님은 교회를 ‘세상에서 부
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그
리스도의 제자들’이라고 정리하셨
습니다. 맞습니다. 교회는 조직체
가 아니라 유기체입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장소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사람입니다. 예수님
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살
아있는 하나님의 교회, 움직이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다니는 일’이

종교적인 행위라면 ‘교회가 되는
일’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생활
속의 영성학자로 유명한 폴 스티
븐슨(Paul Stevens) 교수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교회에 다니지 말
라.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이 교회
가 되어라’(You cannot go to
church; you are the church
wherever you go)고 도전하고 있
습니다. 매일매일 일상생활에서 그
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르는 존
재가 바로 우리이고, 우리가 바로 ‘
교회’입니다.

명심하세요. 성도 한분 한분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요 거룩한
성전입니다. 오늘도 ‘나는 예수님
의 교회’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
지고 사세요.

‘교회를 다니지 맙시다. ‘교회’가
 됩시다. ‘교회’를 다니지 맙시다. 세
상에서 ‘교회’로 삼시다. 우리는 예
수를 따르는 제자, 세상의 소망인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푸/른/초/장

김홍석 목사

(뉴욕뉴기븐교회 담임)



다윗을 말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
님 앞에 가장 인정받고 사랑을 받았
던 분으로 기억됩니다. 그런 의미에
서 과연 다윗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 받았던 조건이 무엇이였을까
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마 그 질
문에 한결 같이 다윗은 ‘예배에 성
공한 사람이었다’ 라고 말할 수 있
을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1-12절 말씀에 보
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무수한 제
물들을 하나님께서 필요 없으니 내
게 가져오지 말라 하십니다. 그걸
가져오면서 내 마당만 밟고 가느니
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시고
하나님이 싫다 하십니다. 왜 일까
요? 내용 없는 형식이 문제인 것입
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예
배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 때, 드
리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건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
시는 예배인가가 문제입니다. 하나
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최대의 관심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한
주일에도 여러 번 예배를 드립니
까? 드릴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 사
회는 어떤 문제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신실한 그런 나라를

이룰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무너진 다
윗의 장막을 일으키시겠다고 하십
니다. 그 당시에 솔로몬 성전도 있
었고, 실로의 성소도 있었고 모세의
회막도 있었습니다. 물론 다윗 시대
도 솔로몬 시대도 모세 때도 다 지

고 말씀합니다.

사슴은 시냇물을 찾지 못하면 죽
음입니다. 물 찾는 것 외에 다른 생
각할 겨를이 없는 것이지요. ‘내 영
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것’은 ‘주
님 아니면 나는 죽음입니다’ 이런
열정입니다. 우리의 예배에 이런

이 우리 개신교회들을 방화했던 일
이 있어서 그때 42개 교회가 전소
되었다고 합니다. 그중에 두 교회는
건재했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두 교회에는 목사님과 예배드
리며 끝까지 저항하는 중 폭도들이
방화를 시작하며 모두 나오지 않으
면 불로 없애 버리겠다고 위협에도
당당히 맞섰답니다. 폭도들이 물러
가지 않고 더 열을 내며 방화를 시
작하는데 조금 전까지 사용했던 휘
발유에 불이 붙진 않았답니다. 하나
님께 예배로 이겨낸 간증을 들으며
지금도 이런 열정으로 예배하는 곳
에 하나님의 임재를 보이시는구나
하는 도전을 받았습시다.

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 정도로
말입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에는 블레셋을
치는데 하나님께 치려 올라갈까요
말까요 하는 친밀함도 보여집니다.
‘눈물의 운동회’라는 짧은 글이 있
습니다.

어느 교도소에서 제조자들에게
일년에 일차씩 운동회를 열어 주었
답니다. 교도관들이 이벤트로 마지
막 날 마지막 경기는 효도 달리기
라 해서 부모님을 업고 달리는 경
주랍니다. 출발신호와 함께 경기가
시작되는데 아무 제조자도 부모님
을 업고 달리려고 하지를 않는 이
색 풍경이 벌어졌답니다. 이 시간이

는 것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오벧에
돔의 집에서 모셔오는 날 다윗은
너무 기뻐서 어린아이 같이 덩실덩
실 춤을 추며 자기 바지춤이 내려
가는 것을 모를 정도로 기뻐했던
그런 어린아이 같은 반응을 보였습
니다.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배의 시작은 예배드리고 예배
당 문을 열고 나가면서부터가 진정
예배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삶 아니 우리 삶 전체에 영
향을 미치는 내용 있는 예배, 그리
므로 이사야 선지자에게 예언하신
“너희가 내 마당만 밟고 갈 뿐”이라
는 즉 형식만 있지 내용을 찾아보
기 힘든 오늘날 저희가 하나님 앞
에 드리는 예배를 말씀하시는 줄 압
니다.

금년이 종교개혁 500주년 되는
해입니다. 우리가 그 의미를 어디서
찾겠습니까? 종교개혁의 가장 큰
업적이라면 예배를 회중에게 돌려
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제들이
예배드리고 회중은 구경하는, 그대
서 아마 예배 본다는 말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예배자
입니다. 다윗과 같은 열정으로, 친
밀함으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
는 그런 예배, 그것이 하나님이 받
으시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 다윗
이 드렸던 그래서 다 없어진 다윗
의 장막을 일으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일으키시고
살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섬기
시는 가정과 교회위에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hongskim1623@yahoo.com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리라

(아모스 9장 11-12절)

다윗의 이 열정이 여러분들의 예
배 가운데 항상 회복되시기를 바랍
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가까움,
친밀함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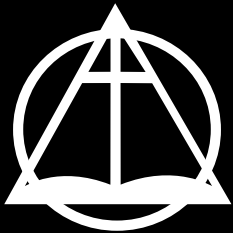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와 아니, 나
아오는 것이 아니라 늘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떤 위기나 고
난의 상황 가운데 아니 아주 통쾌
한 승리 앞에도 하나님이 하셨음을
드러내는데 주저하지 않았습시다.
시편 23편 말씀처럼 “원수의 목전

지나면 부모님과 헤어져야 하나가
마지 누가 늦게 골인하느냐 하는
경주인양 운동장엔 온통 울음바다
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함께하는 임마누엘이 이 친밀함
입니다. 한 순간이라도 더 같이 하
고픈 그런 친밀함 우리의 예배 가
운데 회복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반응이 있는 예배입
니다.

다윗이 통일왕국을 이루고 처음
시행한 일은 빼앗긴 법궤를 찾아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2017년도 목사 학력 및 자격고시 공고

The General Assembly of Korean-American Presbyterian Church

2017 Pastoral Ordination Candidacy Qualification and Examination Announcement

The following information is regarding the "Pastoral Ordination Candidacy Qualification and Exams," which will be offered in May of 2017. Those who wish to become candidates are encouraged to send in all the necessary documents to begin the process. Those who prefer the use of English may submit all documents and take exams in English.

1. Candidacy Qualification

The applicant must be a M. Div graduate (or expected to graduate before June 30 of 2017) of a seminary (acknowledged) by KAPC. He must have a clear confession in the tradition of the Reformed Faith; he also should be a Christian in good standing in a local church with a clear sense of calling into ministry, and with a recognized gift in leadership.

2. Examination Date and Place:

- 1) Dates: May 12(Fri)~15(Mon), 2017
- 2) Place: Anchorage, Alaska USA

3. Examination Subjects

- 1) Written Test : (1) Church History (2) Systematic Theology (3) American Church History (4) Constitution of KAPC
- 2) Written Assignment : (1) OT Exegesis Paper (2) NT Exegesis Paper (3) Thesis Paper (4) Manuscript of Sermon
- 1) OT Exegesis Text - Jeremiah 31:31-37
- 2) NT Exegesis Text - John 8:13-27
- 3) Thesis Topic - Compare and contrast the Christian and Islamic view of God. Discuss its implications on the Christian life.
- 4) Sermon Text - 1 Kings 2:1-9

During the exam period, candidates will be asked to preach from their written sermon.

(5) Instructions for the written assignments : * Plagiarism will not be tolerated !!!

You must submit one hard copy and email a PDF file of each written assignment according to the following regulations:

1. Use 8-1/2" by 11" letter size papers.
2. Use 12-point font (Times New Roman), 1-inch margins, double space, use page numbering, proper footnoting, and include bibliography.
3. Both thesis and exegesis papers should be about 25 pages each in length excluding title page and bibliography. The length of the sermon text should correspond to 30 minutes of actual preaching time.
4. Use a common academic writing format, and all quotes, and cited information must accompany proper references (i. e., footnotes or endnotes).
5. All PDF files must be emailed to kfpncy@gmail.com with the following instructions:
 - a) The subject line must include your name
 - b) File attachments must include your name and assignment title. (Ex. SunghoonChoOTExegesisPaper.pdf)
 - c) You may send multiple e-mails if your files are too big.

3) Oral Interview

4. Accompanying Documents

- 1) A copy of the certificate of graduation with M. Div. degree or a letter from the registrar (or the president of a seminary) certifying that the candidate is expected to graduate before June 30 of 2017.
- 2) An official copy of transcript for the whole M. Div. program.
- 3) A letter of recommendation from the moderator of a Presbytery that the candidate is under care.
- 4) An official letter from a Presbytery (issued by the clerk) confirming that the candidate under care is in good standing.
- 5) Curriculum Vitae (CV) including a clear history of faith (For example, the year of baptism, the name of the church where the baptism was given and the name of the officiating minister, etc.)
- 6) Two passport-size photos of the candidate.
- 7) Fee: \$150 (USD). Pay to the order of - KFPCNY

5. Instructions for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Submission

- 1) All required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must be submitted by March 31, 2017. (Packages post-marked before March 31, 2017 are valid. No late submissions will be accepted.)
- 2) The candidates will not receive back the submitted documents and assignments.
- 3) The results of the exam will be announced during the 41st meeting of the General Assembly (May 16-19, 2017). The candidates who successfully sustain the examination process will be introduced to the floor and will be given Ordination Candidate Qualification Certificates.

6. Miscellaneous Information

- 1) Candidates must reserve rooms appropriately for the dates of exam (May 12-15, 2017 Anchorage, Alaska) through Rev. Sunghoon Cho.
- 2) Candidates may use personal notebook computers for written exams, but the following conditions must be met :
 1. The personal notebook must contain only a Word Processing program.
 2. The screen is not to be changed during an exam. Violators will not be tolerated and will result in dismissal from the examination room.
 3. One must bring his own printer. Any mechanical problems will not constitute a valid excuse for failing to submit the exam on time.

7. Submission Address

Rev. Sunghoon Cho / Address: 37-60 61st Street Woodside, NY 11377 U.S.A.
Cell : (718) 986-8442 E-mail : kfpncy@gmail.com

8. Contact Persons for Information

- 1) Chair of the Exam Committee : Rev. Rev. Yun Joon Hur (718) 637-1470 (Jameshur63@Hotmail.com)
- 2) Clerk of the Exam Committee : Rev. Sunghoon Cho (718) 986-8442 (kfpncy@gmail.com)
- 3) Treasurer of the Exam Committee : Rev. John E. Jho (845)598-6757 (drjho@Hotmail.com)

총회장: 고택원 목사

서기: 허상희 목사

고시부 부장: 허윤준 목사

고시부 서기: 조성훈 목사

교회 선교원 10주년 기념행사를 하면서 5세미만 아이들의 교육문제에 관한 깊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다. 어린 아이들의 교육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기독교 교육, 특히 영재교육에 정통한 선생님의 말을 들어보면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집중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동일하다는 것이다. 그것은 잘 들어야 하고, 잘 듣도록 자세와 태도를 바르게 해주는 것에 가장 강조점을 두는 것이다.

잘 듣는 것에서 성장과 성숙을 기대

듣지 못하면 말하지 못한다. 듣는 귀가 열리지 못하면 입도 열리지 못하고 말도 할 수 없다.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 혹은 들음의 종교라고 칭하듯이 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온전한 믿음생활을 위해서는 잘 들어야 한다. 들음에서

듣는 것이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들음으로 생각할 기회를 얻기 때문이다. 보는 것으로도 생각의 기회를 얻게 되겠지만, 보는 것은 들음에 비해 생각에 머무는 시간이 너무 짧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아이들이 TV 등의 영상물에 지배되기 전, 교육이라는 것은 스스로 책을 읽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목소리를 통해 듣고 상상하며 생각하는 것이 큰 교육이었다. 할아버지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잡언의 소리를 들으면서, 아이들은 생각의 깊이를 더해가는 사고 훈련을 했던 것이다. 그래서 예전에는 나이가 어려도 무척이나 생각이 진중하고 깊이가 있는 아이들을 보는 것이 어렵지 않았던 것 같다. 그러나 요즘 아이들은 어떠한가? 교회에서나 식당에서나 놀랄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다. 이제 돌이 낳았을까싶은 아이가 엄마 전화를 붙잡고 스크린을 좌우로 움직이

이 많음에도, 공부의 깊이를 찾아보기가 어렵다고 한다. 점점 더 감각적이고 현실위주의 공부에 집중하는 것이다. 음악과 예술분야에 있어서도 깊은 묵상을 드러내는 클래식 전공자들보다 당장 눈에 띄고 즐길 수 있는 실용적인 대중음악이 득세하는 것을 본다. 한국의 경우에는 점점 더 클래식 전공위주의 음악대학들이 없어지는 추세라고 한다. 각자의 기호를 따라가겠지만 더욱 감각적인 것에 취해가는 세대임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색조화장(?)하는 10대들

최근의 한국 뉴스를 보면 한국의 식품·약품안전처에서는 화장하는 10대 청소년을 규제만 할 수는 없다고 보고 색조 화장품의 올바른 사용법을 알리는 책자를 초·중고등학교에 배포했다고 한다. 또한

료가 되는 읽는 것과 듣는 것, 생각하는 것보다는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것들에 대한 집중이 자녀세대에게 영향을 끼쳤던 것이다. 진리, 가치, 의미 이런 단어들을 전혀 생소하게 여기게 만드는 환경이 아이들까지 병들게 만드는 것이다.

문화속의 역할

이러한 보여짐의 환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방송이다. 한국의 방송을 보면 자주 충격적인 모습을 보게 된다. 10대와 20대 초반의 아이들이 무대에 나와서 아이돌 걸그룹이라고 노래와 춤을 추는데, 그 선정적인 모습에 얼굴이 화끈했다. 옷을 입은 것이나, 저들의 춤이 성적행위를 상징한 것이 많은데, 과연 저렇게 춤을 추는 저 어린 아이들은 저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고 있는지 답답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예전에는 노래가사가 문제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알간사 제자교회)



생각을 멀리하게 만드는 일상(日常)의 문화류

-듣는 것과 보는 것, 그리고 생각하는 것-

구원의 믿음이 시작되고 신앙의 성장과 성숙도 기대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아이들의 자라나는 형태를 보면, ‘듣는 것’보다 지나치게 ‘보는 것’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음을 본다. 기독교 교육학자들이 듣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생각하는 훈련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이미 10개월 동안 엄마의 배속에서 듣기 훈련을 하고 세상에 태어나는데, 태중의 아이들은 보지 못하지만 듣는 소리로 그 소리의 색깔과 맛을 구별해낸다는 것이다. 말소리의 음색과 장단고저에 담겨있는 엄마의 감정이 고스란히 아기에게 전달되어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가장 세상에서 평화로운 아기의 모습은 일정한 톤의 목소리로 들려주는 엄마의 자장가 노래소리와 마음중심이 담긴 기도소리, 그리고 성령으로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는 소리를 들으며 엄마 품에 안긴 모습이라고 한다.

보는 것보다 듣는 것이 중요

고 누르면서 머리를 집어넣어 몰두하듯이 집중한 채, 주변에 어른이 뭐라 해도 아무런 기척도 느낄 수 없는 삼매경에 빠져있는 것을 자주 보게 되는 것이다.

생각할 틈이 점점 없어지는 것이다. 생각의 틈을 가지기도 전에, 생각에 연결된 의도에 맞는 합당한 사진자료와 내용들이 풍성하게 주어지고 있으니, 더는 생각할 고민의 시간이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생각 없는 행동과 감정주의

이러한 현상은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 세대도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생각의 시간이 짧아짐으로 말미암아, 생각 없는 즉각적인 행동들, 조급증,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을 얻지 못하면 반항과 같은 감정위주의 돌출행동들을 드러내는 것이다. 참지 못함으로 예전보다 더 많은 사건사고의 증가를 보게 된다. 감정적인 돌발행동들은 성숙한 신앙의 삶을 방해하는 많은 실수를 만들어 낸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들은 학생들의 모습이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하고 놀라운 학습 자료들

을해 9월부터 만 13세 이하 초등학교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어린이용 화장품’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화장하는 10대들이 늘어나면서 이를 막기보다 부모들이 화장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가르쳐야 한다는 추세로 전환했다는 것이다.

찬성하는 이유가 이제는 금지할 길이 없기에 긍정적인 통로를 열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과연 참된 긍정인지 물어보지 않을 수 없다. 마치 성에 대한 욕구를 막을 길이 없어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피임기구의 사용을 솔선수범 가르쳐준다는 불가해한 일들의 연속이 아닐까? 청소년기의 연약한 피부의 손실이나 화장의 목적이 미용이기에 더욱 진한 화장으로 갈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미래를 준비할 중요한 시기에 보다 중요하고 의미로운 것을 놓칠 수 있음은 그냥 새털처럼 가벼운 기우에 불과한 것이란 말인가?

그렇을까? 근본적인 문제는 사회 속 깊은 곳에 외모지상주의, 보이는 것에 대한 부모들의 생각 없는 행동의 결과와 그 열매라는 생각이 든다. 부모세대가 생각의 재

였는데, 이제는 생각할 필요도 없이 눈에 보이는 감각에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번뜻 생각이 든다. 저 아이들의 부모는 딸들이 저런 곳에서 옷을 저렇게 입고 엉덩이를 흔들면서 성적인 것을 어필하는 저 행동들을 과연 부모는 알고 있을까? 안다면 자기 딸을 저런 자리에 세워두고 싶을까? 옆에 있던 선생님이 한마디 거든다. 그런 일에 자식들을 세우고자 엄마 아빠들이 도시락 싸들고 덤빈다는 것이다. 게다가 남자 아이들은 진한 색조화장에 귀걸이에 여자치마를 입고 몸을 흔들고 있는 것이다. 아이나 부모나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다.

손가락의 힘으로 무장한 현대인

생각하는 것을 멀리하는 일상의 일들의 이면에 인터넷 문화가 있다. 의문이 생기면 생각을 하고, 인식의 기본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데, 생각을 하면서 관념을 만들어 내기도 전에 손가락이 먼저 움직인다. 생각할 필요도 없이 터치하는 힘이 곧 지식이 되는 것이다.
(8면으로 계속)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구약의 율법인 십계명을 우리가 중요시 해야 하고 지켜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지금은 구약 율법시대 는 지나가고 은혜시대이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이 십계명을 별로 중요시 하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애나하임에서 김진열 장로

A: 참으로 오해하기 쉬운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은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의식법인 제사법, 사회법인 민법, 그리고 도덕법으로 되어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법이나 민법은 그 당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초기 국가가 형성되기 시작한 특수상황에서 주어진 말씀들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제사법이나 민법은 오늘의 우리의 실 상황에서 문자적으로 그대로 다 적용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십계명 같은 도덕법은 아직도 우리가 그대로 우리의 삶에서 지켜야 하는 말씀입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율법의 내용들이 오늘의 우리의 삶에서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하지 못한다고 구약의 율법의 말씀이 쓸모없는 것이나 폐해야 한다고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구약의 제사법 등은 앞으로 신약시대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구약적인 의식이나 제사법, 정결법 등

이 시대에도 십계명은 삶의 방향 알려주는 이정표

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다 성취되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 기자가 말하는 대로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쉼의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히9:10).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히10:1)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음식물 정결규례는 이스라엘을 이방인들과 구별되게 하기위하여 제정하였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말씀이 오늘의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말하거나 그 말씀을 폐해야 한다는 것은 큰 오해입니다. 율법의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지만 아직도 그 영적 의미와 교훈은 아직도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도덕법인 십계명은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아직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십계명은 사랑을 의미합니다. 1-4계명은 하나님사랑(믿음)을 말하고 5-10계명은 사람사랑(행위)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사람을 사랑하는 행위로 그 신앙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구약의 율법을 요약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오늘날 십계명 설교를 듣기가 그리 흔하지 않습니다. 애굽에서 400년간이나 종노릇하던 이스라엘이 출애굽한지 3개월 후에 주어진 이 십계명으로 인하여 그들은 멸실상부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죄에 종노릇하던 자에 불과했으나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리스도의 속죄의 권능으로 인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바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에게 남아 있는 유일한 사명입니다. 이러한 사명감을 가진 자에게 십계명은 삶의 방향을 알려주는 훌륭한 이정표가 될 것이고 이러한 이정표를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참 신자의 삶을 사는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2017년 봄학기



베데스다 대학교

* 봄학기 개강일: 2월 21일

신·편입생 모집

www.buc.edu

“ACF 선정 Online 교육과정 미주 7위”(2015)



입학상담 자세한 정보는 buc.edu를 통해 확인하세요.



1-714-683-1207 (입학처)

▶ admissions@buc.edu

TEL: 1-714-517-1945 / FAX: 1-714-683-1440

▶ www.buc.edu

모집학과

신학

- 학부(B.A.): 목회학/성서신학/기독교교육학/선교학
- 대학원(M.Div.): 목회학/성서신학
- 박사(D.Min.): 목회학 박사

음악

학부(B.A.)/대학원(M.A.)
건반악/관현악/작곡/지휘/찬양사역/실용음악/뮤지컬/컴퓨터.영화음악

경영학

학부(B.A.)/대학원(M.B.A.)
일반경영/스포츠경영/법무행정
경영 지식과 실무 능력을 겸비한 전문인을 양성합니다.

유아교육

학부(B.A.)/자격증프로그램
어린이집, 프리스쿨, 차일드케어 및 교회 유치부, 유년부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ESL

ESL I-20/ Certificate
학부, 대학원생을 위한 본 과정과 ESL Certificate을 위한 어학연수 과정

온라인

학부(B.A.)/대학원(M.A./M.Div.)
전세계 어디든지 온라인과정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대학 스포츠팀

남녀 축구부/남녀 농구부/야구부
미국 기독교대학 체육협회 NCCAA에 가입되어
체육 특기생으로 학업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미국정규 4년제 대학교
SEVIS I-20발급

정부학비지원
(Financial Aid)
각종 장학금 혜택



730 N. Euclid Street, Anaheim, CA 92801

한국 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손상웅 목사
(SEED선교회 연구실장)

20. 이기풍



크리스천이 된 이기풍은 원산에서 스칼론 선교사의 권서와 조사 그리고 전도인으로 변신한다. 더 공부해야겠다고 생각한 나머지 그는 사무엘 마펏의 평양 신학교로 갔다. 마펏 선교사에게 용서를 받은 후 이기풍은 1903년 마펏의 신학생이 된다. 그는 평양으로 온 스칼론 선교사와 마펏 선교사를 따라 순회전도에 동참하며 복음을 전했다.

이기풍(제주도 선교사)은 1865년 평양 동대문 밖에서 출생한다. 한국의 최초 순직 선교사였던 로버트 토마스 목사가 대동강에서 순직하던 1년 전이다. 이기풍이 6살에 사서오경을 읽는가 하면, 12살에 붓글씨로 장원하였고, 30세에 묵화를 그려 생활에 보탬을 얻었다면 총명했다고 하겠다.

이런 총명하다 이기풍은 의협심도 강했다. 이기풍은 거만했던 평양 좌수를 땅바닥에 내동댕이치고 옥살이를 하였다. 당시 위정척사운동으로 평양에서도 서양인을 경계했는데 의협심이 발동하여 그는 평양 거리에서 전도하는 사무엘 마펏 선교사의 턱에 돌을 던졌고, 마펏 선교사는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 대동강을 사이에 두고 돌을 던지는 놀이였던 석전이 벌어질 때 대장을 맡았을 정도로 그는 돌팔매질의 명수였던 것이다. 그런데 이기풍은 턱을 맞아 쓰러지는 마펏 선교사에게서 인자한 얼굴을 보았는데 그 얼굴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1894년 평양은 청일전쟁으로 폐허였다. 평양을 떠나 이기풍은 원산으로 살리 간다. 그런데 거기서 그가 윌리엄 스칼론 선교사를 만났다. 이기풍은 그가 평양에서 돌로 턱을 친 마펏 선교사인 줄 알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크리스천이 되는 기적이 일어났다. 이때가 이기풍이 30세 때다.



이기풍 목사 가족

1905년 일본늑약이후 조선이 일본의 야욕에 늘어나던 1907년 9월 이기풍은 평양신학교 제1회 졸업생 7명 중 한 명으로 졸업한다. 목사로 안수를 받고 그해 이기풍은 내지 선교사로 임명을 받았다.

1907년 독노회 회록에는 “전도국에서 제주에 선교사를 파송하되 그 봉급과 용비는 전국 노회가 연조 담당하기로 작정하고 선교사는 이기풍씨 내외로 선정하다”고 적는다.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한다. 첫째, 이기풍만 선교사로 파송한 것이 아니라 그의 부인인 윤함애도 선교사로 파송하였다는 점이다. 이로써 부부 선교사 파송이라는 전통이 서게 된다. 이 말고도 전도국을 외지전도국으로 변경하였다는 점도 특이하다. 이기풍 이후 이른바 외지 전도(선교)라는 공식어가 탄생했기 때문이다.

백남준에 따르면 이기풍이 선교사가 된 데는 그의 자원에서다. 찰스 크락 선교사는 이기풍이 ‘조선 예수교장로회 독노회를 조직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에서 켈파트(제주도)에 기쁘게 선교사로 나섰다’고 적었다. 이기풍이 선



성안 유치원, 뒷줄 왼쪽이 이기풍 목사

려주셔야 제주도의 불쌍한 영혼을 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라고 하나님께 호소한 응답이었다. 혼자서 조랑말로 전도여행을 다니다가 호미로 밭을 매면서 예수를 전했다. 만 전도의 열매는 없었다. 평안도 말이 제주도에서는 통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대원군의 천주교 박해로 1899년의 신축교란의 천주교 학살 사건 후라 기독교에 대한 반대와 핍박이 심했다. 200명 이상이 이기풍을 죽이기로 서약하는 등 위기 상황은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는 마구간에서 눈을 붙이고, 영양실조로 고생하면서 죽을 고비를 수없이 건너면서 굶주림과 괴로움을 이겨내면서까지 18,000개의 귀신을 따르는 제주도를 사랑하였다. 이기풍이 말풍으로 불을 때고 쌀을 씻지 않고 밥을 짓는다는 제주도의 풍속을 적은 선교편지를 한성신문이 실었을 때 제주도 사람을 야만인으로 취급했다며 제주도 청년들이 이기풍의 먹살을



여천 우학리 교회

마펏 선교사에 돌팔매질했으나 1907년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으로 첫 제주도 선교사로 ‘부부선교사 파송’ 전통, ‘외지전도’ 용어 탄생 1908-16년(1기), 1927-34년(2기), 70이후 전남 도서지방 순회전도

교사로 파송되던 1907년이 평양부흥운동이 시작되던 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복음이 아니면 조국 조선이 있을 수 없다는 비장한 각오를 이기풍에게서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막상 제주도로 떠나려는 이기풍에게 두려운 마음이 없진 않았다. 이때 이기풍의 사모 윤함애가 “우리가 안가면 누가 불쌍한 영혼을 구하겠어요? 두말 말고 속히 떠남시다”고 선교사명을 세워나갔다고 한다. 윤함애는 말라리아로 죽을 뻔 하였는데 사무엘 마펏 선교사의 기도로 살아났고, 송의여학교 제1회 졸업생이 되었다. 윤함애는 그레이함 리 선교사의 양녀가 되었고, 마펏 선교사의 중매로 이기풍과 결혼하였다.

이기풍은 목표를 떠나 제주도로 가던 중 주자도 부근에서 풍랑을 만나 표류하다가 구사일생으로 1908년 2월 추운 겨울 제주도에 도착한다. 하루 반나절을 널빤지 하나에 의지하면서 그가 ‘저를 살

잡았는데 박대감이 말리지 않았다면 큰일 날 뻔했다고 한다.

마침내 이기풍이 평양의 사무엘 마펏 선교사에게 좌절과 절망을 쓴 편지를 부쳤다. 평양 마펏 선교사에게서 예상외로 금방 답신이 와 뜯어보았다. “이기풍 목사의 편지를 잘 받았소. 당신이 내 턱을 들로 친 흉터가 아직 아물지 않고 있으니 아물 때까지 더욱 분투하십시오”라는 엄중한 권면을 읽고 이기풍은 대성통곡을 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

이기풍이 홍수에 떠내려가는 사람들을 살리면서 제주도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다. 예수께서 하셨던 능력 전도가 이기풍의 전도 사역에서도 일어났다. 앓은뱅이 소년이 일어나고 미치광이가 낫는 등 기적이 발생하면서 복음의 문이 조금씩 열렸다. 1908년 9월 이기풍은 조선 독노회에 원임교인 9명에, 회집 교인이 20명있었고 제주 토박이 김흥련이 전도인으로 자

청하였다고 보고했다. 그 해 향교 골에서 시작한 기도처가 제주 최초의 서문통(성내)교회로 된다.

이기풍의 딸 이사례는 그가 쓴 순교보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는 새벽같이 나가시고 나 혼자서 집을 지키기 때문에 관덕정에 가서 아바엄마가 어느 쪽에서 오시는가 하고 쫓그리고 앉아서 기다렸다. 서산에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점점 땅거미가 지기 시작하면 집 앞에 있는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어머니 오시기만을 기다렸다. 이 뽕나무는 내가 외로울 때 위로해주던 가장 친한 친구였다”고 적었다. 이 뽕나무 아래서 성내교회가 시작되었다.

1908년에 성내교회 외에 금성교회가 설립되었고, 1909년에 조천교회와 모슬포교회, 1913년에 용수교회, 1914년에 중문교회, 1915년에 한림교회와 세화교회, 1916년에 고산교회가 개척되었다. 그 외에도 삼양교회와 성음교회도 문을 열었다. 그러나 셋째 아들을 잃은 슬픔이 이러한 쾌거에 가려질 수는 없었다.

이기풍은 1916년 건강악화로 제주 선교를 마칠 수밖에 없었다. 요양 후 1916년 그는 광주 북문안교회(오늘날 광주제일교회)로 부임하였다가 또 요양 후 1919년 순천읍교회로 전임하였다. 1920년에 그가 전남노회

1923년에 순천읍교회, 1924년에 고흥 별교읍교회를 섬겼다. 1923년 4월에는 이기풍 목사의 포교 25주년 기념식이 순천읍 예배당에서 개최하였다.

1927년 이기풍은 제주도 2차 선교 사역에 들어선다. 성내교회로 재차 부임한 이듬해 이기풍은 환갑을 맞았다. 60에 들어선 이기풍은 복음 사역 외에도 제주유치원을 설립하고 영흥학교를 개교하는 등 기독교 교육에도 힘썼다. 1930년 6월 제주노회가 결성된 그 다음 해 그는 노회장을 역임했다. 1934년 이기풍이 떠난 제주도에 30여개 교회가 설립되었다.

7년간의 제2차 제주 선교를 마친 후 은퇴한 이기풍에게 순천노회와 별교교회는 그의 포교 35주년 기념식을 열어 그의 교회교육사업에 빛냈다. 그는 1934년 70세의 노구에도 전남 지역의 도서 지방에서 순회전도를 하면서 교회 개척에 집중하면서도 연약한 회회를 굳건히 하였다. 1938년 이기풍은 여천 우학리 교회에 부임했다.

1938년 9월 장로교까지도 신사참배를 가결하자 이기풍은 신사참배를 강력하게 반대했고, 아이들이 신사에 올라가서 놀지도 못하게 하였다. 경찰서에 수감된 72세의 이기풍은 “나는 죽어도 일본 귀신한테 절할 수 없다. 너희가 지금 총을 쏘아 죽인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절대로 섬기지 않겠다”고 신앙을 고수했고, 뼈와 가죽만 앙상하게 남은 때까지 심한 고문을 견뎌냈다. 출감조치가 결정되었으나 나머지 목사들이 출감하기 전까지는 절대 나가지 않겠다던 이기풍, 그는 극도로 쇠약해진 가운데 여천 우학리교회 목사관으로 옮겨졌다. 1942년 6월 13일 그는 주일 부축을 받으며 마지막 성찬예식을 거행했고, 1주일 후인 1942년 6월 20일 주일에 광복을 보지 못한 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그는 마지막 사역지인 우학리에 안장되었다가 광주제일교회 화순묘지로 이장되어 오늘에 이른다.

1959년 대한예수교장로회 제44회 총회는 이기풍의 부인 윤함애에게 표창했다. 윤함애는 1962년 12월 25에 향년 84세로 주님의 부름에 응했다. 본 장로회 제77회 총회는 이기풍 목사의 제주 선교 업적을 기념하기 위하여 이기풍 선교 기념관 건립을 가결하고 1998년에 총 1천여 평의 건물을 건축했다.

이기풍으로 시작된 제주도 선교는 ‘첫 번째’라는 몇 가지 교훈이 있다. 이기풍은 첫 번째 파송된 장로교 선교사였고, 이기풍과 함께 사역한 이관선은 첫 번째 여자선교사였고, 일 년에 한번 선교비가 지급되었다면 이기풍은 첫 번째 믿음선교를 감당한 선교사였다. damien,sohn@gmail.com



이기풍 목사 묘지

노회장이 되더니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의 부름을 받아 이듬해 총회 부회장을, 1921년에는 총회장을 역임하였다. 오래된 관절염과 궤양으로 서울로 올라가 요양을 하다가 다시 목회로 돌아선 그는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www.rptse.com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THE REFORM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THE EAST

▣ 학교안내

본 신학교는 미주에서 가장 큰 한인 장로교 교단이며 북미주 보수 장로교 및 개혁교회 협의회(North American Presbyterian and Reformed Council)의 정회원인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총회 신학교로 성경 영감과 절대 권위를 신조로 삼고 개혁주의 신학훈련을 통하여 복음적 목회자를 양성하는 정통적 보수 신학교입니다. 역사적인 21세기를 맞이하여 개혁운동을 통하여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고자 하는 사명감에 불타는 신실한 일군들을 양성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신입생 및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 특 전

- 국내외 저명한 교수진 확보
- 성적우수학생에게는 장학금 지급(특히 목회자, 선교사적 사명감이 투철한 자에게는 선발 심사후 장학금을 지급함)
- 6만여권의 한글, 영문 신학장서를 소장한 도서관이 있음
- 목회학 석사 졸업자는 총회 목사고시를 거쳐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음
- 대학원 과정을 졸업한 여전도사는 본 교단 산하와 그의 기관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수 있음

● 학 과 ●

대 학 부	신 학 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선 교 학 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대 학 원	목 회 학 석사	3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기독교교육학 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선 교 학 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여교역학과	3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 문의처 ●

Admission Office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463-7163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장 장 영 춘 박사

성경도 신앙 (25)

청교도들의 예배 (14)

10)하나님의 가장 신실한 일꾼들은 공예배를 더 선호한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았던 자들이나 하나님과 가장 잘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던 자들은 공예배 시간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겼다. 그들에게 사적인 예배와 공예배 중 무엇이 더 중요하냐고 묻는다면 주저 없이 공예배라고 대답할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경우를 보라. 그의 행동이나 증언이 다 하나님의 마음을 따른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 그가 단호하게 확증하는 한 가지 사실을 보라.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살았다. 그들은 공개적으로 복음을 선포하다가 수많은 위기에 빠졌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안전과 자유보다 공예배를 더 소중히 여겼다. 만일 그들이 주님을 개인적으로 섬기는 것으로만 만족했다면, 그들도 다른 사람들과처럼 안전하고도 평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우리 주님도 모든 제사의식들이 자신으로 인해 중단될 것을 아시면서도 그 의식들을 소중히 여기고 참여하셨다. 비록 그 모든 의식들이 다 죽은 형식들이었을지라도 주님은 공적으로 참여하는데 빠지지 않으셨다. 도리어 주님은 제자들에게 모세의

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고 백성을 모아 그 회를 거룩케 하고 장로를 모으며”(출2:14-16). 여기에는 이어지는 18절과 19절에 언급된 성공의 비결이요 수단이 제시되어 있다. 주님은 온 나라에 필요한 자비하심을 베풀겠다고 약속하신다.

신약에 교회가 공적으로 모여 기도할 때, 베드로가 감옥에서 구출 받는 기적이 일어났다(행12:5-17). 여기에서도 공적인 모임이 교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참으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능하게 된 것들이다. 그리스도의 피로 값 주고 산 것들이다. 우리의 눈앞에 제시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에 주신 특별한 선물이다.

정복자는 승리의 날에 백성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준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6-8절에서 그리스도를 승리하신 왕으로 묘사하면서, 하늘에 오르실 때 땅에 남아있는 교회를 위하여 선물들을 주셨다고 했다. 11절에서는 그 선물들이 바로 교회 성도들을 돌보는 책임을 지닌 직분자들이라는 것을 밝힌다. 이로서 그들의 임무를 수행하는 공적인 예전 의식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알 수 있으므로 우리는 공예배를 무엇보다 선호해야 한다.

13)하나님의 약속들이 공예배 시간에 더 많이 나타난다

주님은 백성들이 모여 있는 곳에 임재 하신다.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네게 감람하여 복을 주리라”(출20:24). “불찌어다 내가 문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3면에서 계속)

그리고 나서 모든 참가자를 화나게 할 만한 자료를 보여주고, 일주일이나 지난 뒤 참가자들에게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든지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다. 참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고 숙지한 참가자들에게서 적대적인 해결책 대신 외교적인 접근법을 선호한다는 답이 더 많이 나왔다.

미국 정치인들에게 인지 재해석을 가르치는 건 요원해 보인다. 하지만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 많은 자선단체는 이미 “눈에 띄는 희생자 효과(identifiable victim effect)”를 잘 알고 있다. 아무리 엄청나게 심각한 통계 수치가 있더라도 숫자의 나열이나 그래프보다 사람들의 공감을 얻는 데는 특정 피해자의 생생한 사례가 더 효과적이라는 뜻이다.

바로 두려움을 촉발하는 사례에 논리를 들이치는 대신 공감의 손길을 내밀도록 하는 또 다른 생생한 사례로 맞서는 것이다. 사진 한 장이나 짧은 이야기나 강력한 파급력을 미치는 이유가 여기 있다.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에서 마케팅과 심리를 가르치는 데보라 스몰 교수는 2015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무고한 난민, 테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난민, 우리와 똑같이 테러에 분노하고 희생자를 보며 슬퍼하는 난민의 이야기일수록 사람들의 마음을 살 수 있습니다.”

7. 우리와 남을 가르는 경계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새로 그을 수 있다.

어디까지는 나와 비슷한 우리, 어디부터는 우리와 다른 남, 이렇게 세상을 인식하는 건 어쩌면 우리 뇌의 본능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 경계를 어디에 그을지는 본능에 없다. 많은 실험이 참가자들을 무작위로 나누듯, 실제 사회에서도 우리는 다양한 기준에 따라 우리가 될 수도 있고 남이 될 수도 있는 사람들과 이미 섞여 살아간다.

2013년 반 바벨은 효과적인 묘책을 하나 실험했다. 흥팀과 청팀을 나눠서 진행하는 실험 중에 갑자기 팀원 몇 명의 팀을 서로 바꾸주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잠시만요, 죄송해요, 저희가 실수로 몇 분의 팀을 잘못 나눴어요. 사실 7개는 흥팀이 아니라 청팀 소속이었고요, 1개는 청팀 대신 흥팀으로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팀을 바꾸면 그 순간, 바로 그 순간 사람들은 조금 전까지 적으로 돌렸던 사람들을 우리 편으로 인식하고 호의를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물론 실험실에서도 간단한 일이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간단하지 않은 문제일 수 있다. 두려움을 비롯한 감정들이 이미 단단히 굳은 상태일 수도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도 배타적인 편견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 여러 실험을 통해 증명됐다.

초대교회 성도, 자신의 안전과 자유보다 공예배를 더 소중히 여겨

주님도 공적예배에 열정적 · 공적 모임이 교회 전체에 큰 영향 미쳐

주님과 개인적 시간 잘 갖는 자는 공적 예배에서 더 큰 은혜 받아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시84:1). 이는 말로 어찌 표현할 수 없는 감탄을 반영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와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라고 고백한다.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사모함이 그에게 있었다. 주의 장막에서 주님을 만나는 사모함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그의 영혼을 쇠약하게 만들 정도였다. 그는 성전에서 영혼의 만족함을 얻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 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10절). 다윗이 왕이지만 공예배에서 이탈되어 있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의 집에서 문지기가 되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즐기는 편을 택하겠다는 고백이다.

성도들은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모든 기회들과 주님께서 공적으로 경배를 받으시는 기회들을 어떻게 간주했는지 살펴봐야 한다. 그들은 수많은 고통과 위험과 죽음에 직면하면서

율법의 자리에 앉아서 그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의 소리를 들으라고 권면하셨다. 주님께서 그들보다 훨씬 더 나은 선생이신 데도 주님은 종종 회당에 가시고 유월절에는 항상 성전에 가신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런 기록은 공적 예배시간을 향한 주님의 열정이 어땠는지를 보여준다. 주의 집을 이루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시69:9) 라는 시편기자의 고백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1)공예배는 가장 큰 자비함을 얻는 최고의 시간으로 가장 큰 심판을 피하는 자리이다

은 교회가 국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바로 공예배이다. 사회의 왜곡된 현실들, 재난에 대하여 주님의 자비하심을 얻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공예배이다. 공예배는 주님께서 그런 목적을 이루고자 제정해주시는 은혜의 수단이다. 주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성공을 약속하시면서 공예배를 바르게 사용하라고 말씀하신다.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행4:31). 요한계시록 8장 4절은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고 말씀한다. 성전에서 제사하면서 공적인 기도를 드린 후에 일어난 현상을 언급하고 있다.

당시 로마제국에서 심판과 핍박을 받는 이들을 위한 성도들의 기도는 즉시 응답되었다. 이처럼 공예배는 공개적이고도 보편적인 주님의 은총을 받는 최고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성도는 사적인 예배보다 공예배를 더 선호해야 한다.

12)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 공예배에 가장 효력 있는 가치이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죽지 않으셨다면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모두 개별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며 별도로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했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없었던다면 그 모든 일을 다 자연의 빛에 따라 거행해야 했을 것이다. 공적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언약의 성례들을 집전하는 것은 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가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계3:20).

주님은 여기서 교회에게 말씀하신다. 공적 예전이 집행될 때 문을 열십시오 두드리십시오. 은혜와 영광과 모든 선하고 좋은 것들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겠는가?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 주님을 공경하기를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는 자들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아끼지 않고 주실 것이다. 공예배 못지않게 개인적인 경건 시간에 힘쓰는 자에게도 큰 은혜를 주신다. 그러나 공예배와 비교할 수 없다.

주님과 개인적인 시간을 잘 가지는 자는 공적 예배에서 더 큰 은혜를 받는다. 한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하여 유익을 얻는다면,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더 큰 유익을 얻을 것이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주님과 함께함으로서 얻는 유익은 공적인 모임에서 온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에 더욱 극대화됨으로 공예배를 사적 예배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younsunklee@hotmail.com

(5면에서 계속)

손가락의 힘으로 무장한 현대인은 보이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진 일상의 삶, 이로 인해 생각 없는 즉각적인 감정의 표현에 몰입된 인간으로 진화한다. 더 나아가 사회적인 이슈의 문제에 있어서도 사실과 진실의 문제를 생각하고 추론하여 가장 보편타당한 답을 얻어야 함에도, 본능의 과정 없이 먼저 분노하고 보는 것이다. 그 분노가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을 만들었을 때, 흑자가 질문을 해본다. 왜 그랬느냐고? 돌아오는 답은 스스로의 의지적 결론에 대한 확신 없이 ‘누군가 카더라’는 답만이 돌아온다.

세상 속에서-겉사람과 속사람

듣고 생각하는 것보다 보는 것을 우선하고, 감정중심의 가치관이 흘러가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중심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예전에는 예배가 무엇에 하나님을 믿음을 듣기 위해 마음의 준비를 하고, 마음 판에 새기며 말씀을 들었다. 그러나 이제는 강단에서 뽀개를 자극하고 보여주기를 원한다.

게임이나 인터넷 놀이를 위해서는 한두 시간은 아무런 문제가 아닐 텐데, 귀하고 소중한 예배의 한 시간을 그 조급증이 건디지 못하게 한다. 눈으로 보여지는 것은 늘 같은 목회자, 같은 성경말씀, 같은 음식과 음조이기에 도무지 집중이 되지 않는 것이

다. 말씀을 듣기 위해 나아왔지만, 듣는 것과 생각하는 것에 적응이 되지 않는 것이다. 감성주의의 흐름에 마음과 몸을 맡기는 것이다.

성경은 겉사람과 속사람을 말한다. 겉사람은 후파할 것이나 속사람은 은혜 안에 날마다 새롭게 된다고 한다(고후4:16). 겉사람은 보여지는 것이요 드러나는 것이다. 세상의 것으로 좌우되는 삶의 모습이다. 곧 썩어 후파하여질 것이다. 속사람은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태-영혼의 모습을 의미한다. 즉, 겉사람은 ‘육신’을 속사람은 ‘거듭난 영혼’을 의미하는 것이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는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며 하나님 안에서 의미있는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가? 눈에 보여지는 썩을 것에 모든 것을 걸지 않는 사람이다. 후파하여 버려질 육신에 초점 맞추는 삶을 살지 않는다. 그는 오직 말씀을 들음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날마다 그 속사람이 새롭게 되는 그 일에 초점 맞추어 사는 이, 그가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순응하지 않는, 구별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이다. 날마다 그 영혼이 주님 안에 새롭게 되는 삶, 그 삶을 살아가고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성도의 거룩한 책임을 다하는 이가 세상속의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것이다.

davidnjeon@yahoo.com

세기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웅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 (702)579-7576, Fax, (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6: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610)222-0691, 267-471-7777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 www.omvchurch.org	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광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월 아 예 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Tel, (215)945-1512, Fax, (215)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벤엘교회  담임목사: 백성중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1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410)461-1235, Fax, (410)461-6823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http://www.bethelchurch.org/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찬양회: 오후 8:00 유치, 청년, 중고등부: (주일)오전 11:00, (금) 오후 8:00 Tel, (508)435-4579, www.bostonkorea.org 3416 Atlas Ave., Hpkinton, MA 01748	샬럿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 아침예배: 오전 10:45 토요새벽기도: 새벽 6: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대학청년부: 오후 1:00 수 요 예 배: 오후 8:00 금요, 유치, 청년예배: 오전 10:45 중, 고등부예배: 오전 10:45 Tel, (704)877-6642, (704)529-0900 701 Scaleybark Road, Charlotte, NC 28209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시애틀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영예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저녁예배: 오후 7:30 금요기도회: 오전 9:00(화-금) 토요일: 오전 6:30 Tel, (254)527-0981, Fax, (202)524-1746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www.kpccseattle.org	안다옥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Tel, (702)749-9829, Fax, (702)778-6876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 www.omvchurch.org	알칸사 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2부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501)425-5178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www.ljrc.org	앵커리지열린문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http://www.bethelchurch.org/	엘파소열린문교회  담임목사: 하태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영어)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Tel, 교회(915)755-1490, 사택(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	영성장로교회  담임목사: 백운영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Tel, (215)542-0288, Fax, (215)542-9037 706 Witmer Rd., Horsham, PA 19044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킬런노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현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토요청년모임: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Tel, (254)634-8705(H), (254)501-4933(C) 1000 E. Vete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	워싱턴메시사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www.mpcow.org Tel, (703)941-4447, Fax, (703)941-4448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주예수교회  담임목사: 박헌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15 수요찬양: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토) www.jkc.org Tel, (804)560-7500, Fax, (804)560-7514 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35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영어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예배: 오전 11시 주일 3부예배: 오전 11시 15분 수 요 예 배: 오후 7시 새 생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 (화-토) Tel, (253)536-8675, (253)888-9249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www.iscomacc.org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조진모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927-0630, Fax, (215)927-0643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www.kucp.org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목회서신

“복” 받으라



여승훈 목사

지구촌 곳곳에서는 매일 사건과 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휘청거리고 있다.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단순히 일어난 상황에 대한 놀라움 때문만은 아니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현실 세계에 소망을 걸어 두었던 사상이 실제적인 이유이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현실세계에 대한 소망은 모든 것이 눈에 보기에 잘되고 귀로 듣기에 잘되고 감각적으로 느끼기에 잘되는 것에 둔다. 이런 관점을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많이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이해하였고 반대로 땅과 가진 소유가 적은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이해하였다. 가난하면 저주이고 부유하면 복이다 라는 사상이다. 이런 유대 사회의 복에 대한 이

해를 예수님께서 한순간에 깨뜨려 버리는 사건이 있었다. 예수님은 자신의 지상 첫 번째 설교인 ‘팔복 시리즈’를 통해서 ‘복’에 대한 참된 개념을 가르쳐 주셨다. “심령이 가난한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임이요”(마5:3). 유대인들이 저주라고 여기던 가난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것이 곧 복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유대 사회의 통념을 일시에 뒤집어엎는 매우 충격적인 발언이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가난한자의 복과 같은 맥락의 복을 구약의 시편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다. “복있는 사람은....”(시1:1). 여기서 말한 ‘복’은 히브리어로 ‘아샤르’라는 단어로 그 의미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 가운데서 순종함으로 주어지는 보상으로 ‘번영하다’라는 뜻이다. ‘번영하다’ 물질세계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금세 알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 단어가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에서 사용하신 ‘복’이라는 단어의 ‘마카리오스’로 번역되었다. 시편 1편 1절의 ‘복’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이 같은 의미라는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카리오스(복)의 의미는 ‘하나님나라에 참여하므로 누리는 즐거움’이라는 뜻이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의 흐름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골2:17).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월삭, 안식일은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내용이다. 즉 구약은 그림자의 역할이다. ‘몸은’ 이 말은 ‘실체’는 ‘완성’ 그런 의미이다. 즉 구약은 그림자이고 그 구약의 실체는 그리스도이시라는 뜻이다. 시편 1편의 복(아샤르)이 비록 번역

하다의 의미를 가졌어도 그것이 실체(완성)가 아니고 그 복이 가리키는 실체(완성)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이다. 복의 실체인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인 하나님나라에 참여하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생활 속에서 누리는 물질적 환경들이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포괄적으로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에 포함이 된다. 그런데 복의 실체(핵심, 본질)는 될 수 없다는 이야기다. 복의 실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나라에 있다는 것이다. 비록 물질로 풍요롭다 하더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나라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다. 반면에 비록 물질이 빈곤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나라의 즐거움을 가족들이 누리며 산다면 그것이 곧 진짜 복이라는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나라의 즐거움 즉 진짜 복을 추구할 때, 물질이 풍부해도 그분께 감사를 드리고 물질이 빈곤하여도 좌절하지 않고 빈곤한 중에 그분의 섭리가 있음을 신뢰하고 또한 빈곤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진짜 복인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리게 된다. 반면에 물질세계의 번영이 곧 복의 표준이 되어버린다면 물질이 넉넉하면 복 받은 것이라 생각하여 흥이 나게 살지만 물질이 빈곤해지면 복이 떠나갔다는 생각이 들면서 좌절하고 절망하며 죽지 못해 사는 나날을 보내게 될 것이다.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분명하지 않다. 기독교의 진리가 절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 빈곤하다고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빈곤으로 말미암아 더욱 깊이 알아가는 하나님나라의 즐거움 때문에 더욱 당당하고 더욱 여유있게 된다. 이런 것이 세상 사람들이 충격 받는 진실한 믿음 아니겠는가? 잘될 때 좋아하고 안될 때 절망하는 것은 기독교 바깥에 머물고 있는 세상 사람들도 할 줄 아는 것 아닌가? 그것은 믿음과 관계없이 사람의 본능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의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빈곤한 상황들로 인하여 결코 실망할 필요가 없다. 그 이유는 이렇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으로라”(고전5:7).

실망하지 않는 이유는 보는 것에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이다. 반대로 말하면 눈에 보는 것에 소망을 두면 그것은 곧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면 일이 뜻대로 잘 안되거나 막히게 되면 실망하고 절망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바울이 롬8:25에서 매우 의미있는 말을 하였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찌니라” 보지 못하는 것 즉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하나님나라에 참여하므로 누리는 즐거움을 소망으로 삼는다면 참음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참음이라는 것은 자신의 의지력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다. 내 의지력은 참는데 한계가 있다. 절대 오랫동안 참지 못한다. 바울이 참으라고 호소하는 것은 자신의 의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근원인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에게 일어난 2000년 전의 사건(십자가, 부활)을 지속적으로 집중하고 붙잡으라는 의미이다.

당신의 인내력을 테스트하지 말라. 시험 듣기 쉽다. 시간문제이지 한계가 반드시 찾아온다. 참는 것은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매어 달리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결국 내가 참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스런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 당신으로 하여금 참아내게 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참는 것도 전적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이다.

미국과 한국, 열방의 회복을 소원한다

제10회 올네이션스 연합중보기도 컨퍼런스

제10회 올네이션스 연합중보기도 컨퍼런스가 GMI(Global International Missions, 대표 정운명 목사) 주최로 지난달 29일 오후 6시30분, 30여 민족 대표 목회자와 성도,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샌프란시스코 이스트베이지역에 위치한 First Christian Church(담임 Doug McCoy 목사)에서 미국과 한국, 열방의 회복을 소원하며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메시지에서 주강사인 Dr. Bill Matthews(Oak Park Christian Center 원로목사)는 열방의 치료를 위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체험하고 그의 열국을 추구하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인용해 역설했다.

이어서 남북한을 비롯해 미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중동, 몽골, 라틴, 호주, 아프리카, 파시픽 아일랜드, 이란, 아랍, 러시아, 아프리카, 유럽 등의 당면한 중보기도 요청내용과 각국의 당면한 심각한 기도제목들(Prayer Issues)의 발표와 회복을 위한 영상발표(presentation)가 있었다.

이어 한국을 비롯한 열방의 여러 민족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각 민족 목회자와 시민들이 뜨거운 통성 연합기도를 했다.

특히 이날 미국내 교회, 학교, 사회, 정부, 군인, 젊은 세대를 향한 영



올네이션스 연합중보기도 컨퍼런스에서 주관자들이 한국의 안정과 회복을 위해 태극기를 들고 합심기도하고 있다

적각성과 미국 캠퍼스 복음화 촉구와 함께 가정과 교회와 사회의 보호를 촉구하며, 특히 동성애와 낙태 등의 창조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미국을 위해 GIM 선교위원들이 새로 개정한 15개 미국 회복기도문을 Steve Willhite 목사(콩코드 Parkhaven Community Church 담임)가 선언 발표했다.

북한의 핵무기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과 관련해서는 국정 안정과 함께 한국 대통령의 직무복직에 대한 소원을 강력히 피력하며 합심 기도했다.

이날 LA 커뮤니티크리스천처치의 제임스 조 목사와 샌프란시스코의 중국 그레이스침례교회 목사가

현 한국 상황을 발표했다.

이날 대회를 위해 LA서 참석한 박성원 장로(박용만애국지사기념사업회장)는 성조기와 태극기를 마련해 대회에 참가한 한인 커뮤니티를 격려했다.

대회장 정운명 목사(GIM 대표)는 오는 5월 7일 제 10회 Global Multicultural Concert와 10월의 제 13회 글로벌다민족국제선교대회(Global Int'l Missions Rally)를 이스트 베이 지역에서 갖는다면서, 미국의 재부흥과 함께 한국과 열방의 회복을 위해 여러 민족이 함께 결속해 협력할 것을 전하고 미국 내의 많은 한인커뮤니티도 적극 참여할 것도 전했다.

(정리: 유원정 기자)



웨스턴커버넌트대학교 기자간담회에서 데이빗오 총장이 학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순수복음주의 초교파신학교로 운영

웨스턴커버넌트대학교 기자 간담회

웨스턴커버넌트대학교(WCU, 총장 데이빗오) 기자 간담회가 3일 오전 11시 JJ그랜드호텔에서 열렸다.

데이빗오 총장은 “WCU는 지난 2003년 11월에 개교했으며 대학교 내 신학교는 순수 복음주의로 21세기 세계선교 사역과 목회사역을 위해 운영되며 초교파신학교로 운영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오 총장은 “한국은 세계 10위권에 위치한 경제 강국이자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국가다. 따라서 다음세대 세계선교를 주도적으로 펼쳐나가는 국가로 생각하고 신학교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WCU제주캠퍼스를 담당하고 있는 좌영진 목사는 “제주도가 하나님께서 선교적 교두보 역할을 하게 마련하신 곳이라 생각된다. 그것은 제주도에 매일 4천명 이상 중국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남아로 가는 직항코스다”고 밝혔다.

좌 목사는 “현재 제주도에 는 무

수한 신학교들이 운영되고 있다. 그중에는 무인가 신학교도 있다”고 언급한 후 “많은 목회자들이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권 선교를 준비하기 위해 신학교 진학을 생각하고 있다. 이왕이면 미국에서 정식인가를 받아 운영되는 학교를 통해 선교훈련을 받기를 원하고 있다. 마침 WCU가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세워졌다. 또한 연합동맹의총회와 연결돼 안수 및 선교사 파송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WCU는 지난 2016년 6월 Sevis I-20 발급 승인을 얻었으며 현재 가주교육국 인가를 받은 학교로 신학교 협의회 중 하나인 트랙스에 가입 신청을 해 2018년에 준회원 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학위과정은 △학부과정엔 신학과, 국제선교학과, 교회음악과, 체육선교학과, 기독교교육학과, 상담학과 △석사과정에 선교학과, 목회학과, 신학과, 교회음악과, 기독교교육학과, 종교학과, 종교예술학과, 상담학과, 치유학과, 경영학과, 태권도교육학과, 농업벤처 교육학과, 한의대학, 경영대학, 골프대학 △박사과정으로 목회학박사, 선교학박사, 신학박사, 기독교교육박사, 상담학박사, 사회복지학박사 등이 있다.

(박준호 기자)

부목사(교육)님 청빙공고

라스베가스에 있는 라스베가스 안디옥교회에서는 부목사(교육)님을 청빙코자 합니다

자격

- 1. 이민교회 경력(교육) 2년이상 퇴신 정규신학대학원(M.Div.) 졸업자
- 2. 해외한인장로회(KPCA) 총회 소속 및 가입 가능하신 분
- 3. 시민권자/영주권자 또는 미국체류에 결격사유가 없으신 분
- 4. 이중언어(한국어/영어) 설교가능하신 분

제출서류

- 1. 이력서(사진첨부)
- 2. 목사안수증명서
- 3. 최종학교졸업증명서 및 학위 증명서
- 4. 최근 영어설교 영상 1회분 (DVD or Web-link)
- 5. 자기소개서(가족포함)
- * 제출마감 : 2017년 2월 28 일
- * 제 출 처 : 해외 한인장로회 안디옥교회
-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
- e-mail : revpetergang@hotmail.com

해외 한인장로회 안디옥교회



한미연합회는 지역 공동체와 We Are All America 연대행사에 참여했다

We Are All America 연대행사 참여

한미연합회, 트럼프 반미국적 행정명령에 대응

한미연합회(사무국장 방준영)는 3일 오후 1시 시민단체, 종교단체, 노동 단체 및 사회운동가들과 지역 리더들과 함께 가주 이슬람 센터에 모여 트럼프 대통령의 난민과 이민자들을 겨냥한 위험하고 비헌법적이며 부도덕한 다수의 행정 명령에 대해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대

응 집회에 동참했다.

전국 집회의 일환으로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여러 연맹 단체들이 모여 데모, 행진, 대규모 집회를 열고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공격당하는 이웃들과 하나로 연대하고 행정부의 대규모 추방명령, 범죄화, 증오 및 여러 금지법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방준영 한미연합회 사무국장은 “이제 우리는 연대하고 진실을 말할 때다. 우리의 미합중국은 안전한 삶을 건설하고 가족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피난처를 찾는 전 세계의 이민자를 기반으로 세워졌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반 이민 행정 명령은 미국 가치와 우리 이민 사회를 배반한다. 한미연합회는 본 행정명령이 비헌법적이고 비미국적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민 사회의 구성원뿐만 아니라 불의에 굳게 저항하는 인류의 사람들로서 결속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참여한 사회단체는 다음과 같다.

△한미연합회(KAC), Church World Service, Council on American-Islamic Relations(CAIR-LA), California Rising Collaborative, CLUE LA △El Rescate, Islamic Center of Southern California, Latino Coalition of Los Angeles PAC, SEIU California, SEIU-USWW. (기사제공: 한미연합회)





박인수와 음악친구들 신년맞이 찬양이 있는 음악회

“박인수와 음악친구들 신년맞이 찬양이 있는 음악회”가 1일 저녁 8시 한길교회(담임 노진준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음악회는 테너 박인수 교수와 그의 제자들이 함께 성가와 가곡 그리고 민요와 오페라 아리아를 불렀다.

이날 출연진은 테너 박인수 교수, 소프라노 독고정화, 송란, 박소영, 테너 오위영, 황성식, 윤길웅, 왕승원, 김성준이며 반주는 이하늘 자매가 맡았다.

(박준호 기자)

코아맥스 김용환 회장 KFAM에 1만불 쾌척
저소득층·서류미비자 무료상담에 사용

한인가정상담소(KFAM·소장 카니정조) 무료 상담 프로그램을 위해 코아맥스 김용환 회장이 1만 달러를 쾌척했다.

한인가정상담소는 심리상담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서비스를 받고 있지 못한 한인들을 위해 지난해 12월 연말 특별 후원 캠페인을 펼쳤다. 이 소식을 접한 김용환 회장이 1만 달러를 후원한 것이다.

김 회장은 2016년에도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에 써 달라며 1만 달러를 쾌척하는 등 한인가정상담소가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기 위해 펼치고 있는 사업에 지속적인 후원을 보내고 있다.

카니정조 소장은 “정부 그랜트는 채류신분이나 보험 여부 등의 제약이 많아 서류미비자나 무보험자, 저소득층 한인들은 수혜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그러나 김용환 회장님처럼 건강한 한인 가정을 위해 마음을 써주시는 한인 1세들 덕분에 2017년에는 심리상담이 필요하지만 채류 신분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상담을 받을 수



한인가정상담소에 1만달러 쾌척한 코아맥스 김용환 회장

없었던 한인들에게 보다 많은 무료 상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인사회 성공한 1세 사업가로 꼽히는 김용환 회장은 식품도매 기업인 코아맥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김용환 재단을 통해 장학사업 및 기부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연락처: (213)235-4848, dkim@kfamla.org
(기사제공: 한인가정상담소)



아메리칸 카운셀 댄 데이빗 회장이 뉴얼한국어 시험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웅기장이교회 창립감사예배에서 모뎀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하나님 사랑의 손길로 빛어지는 교회로
웅기장이교회 설립감사예배, 미주성결교단 가입

웅기장이교회(담임 김시은 목사) 설립감사 예배가 5일 오후 4시에 열렸다.

김시은牧사는 “저희 웅기장이교회 설립예배가 은혜롭게 갖게 돼서 감사하다”며 “교회이름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빛어지고 하나님의 손안에 머물며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빛어가는 사람들의 사랑공동체로 되어지는 교회가 되길 바라며 그렇게 되도록 많은 기도와 격려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최경환 목사(LA지방회 서감찰장/시온교회) 사회로 시작된 설립감사예배는 최은호 장로(LA지방회 부회장/연합선교교회)가 기도, 김종호 목사(LA지방회 서기/예향선교교회)가 성경봉독했으며 오서택 목사(LA지방회장/뉴송교회)가 ‘장자들의 영성’(호1:12-18)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 서약과 치리권 부여 그리고

공포 및 개척후원금 증정으로 이어졌다.

치리권 부여 순서를 통해 사회권을 이양 받아 김시은 목사가 설립축하 사회로 이어졌으며 이상복 목사(미주성결교회 부총회장/연합선교교회)와 이훈근 목사(미주성결교회 총무)가 축사를, 류종길 목사(미성대학교 총장/임마누엘선교교회)가 격려사를, 조종근 목사(미주성결교회 전 총회장/사우스베이션교회)가 권면했으며 임마누엘선교교회 임마누엘찬양대가 찬양했다.

이날 예배는 신원철 목사(미주성결교회 전 총무/제일교회 원로)의 축도로 마쳤다.

웅기장이교회는 지난 2016년 9월 4일 첫 번째 예배를 드렸으며 이날 교단가입을 겸한 설립예배로 드러졌다.

(박준호 기자)

2015년 대학학점인정 승인...온라인 수시등록
뉴얼한국어시험 설명회 및 교사연수

IKEN(공동회장, 엘렌박, 김성순)과 초중고한국어교사협의회(회장 김진영)는 LA한국교육원(원장 권영민)의 지원을 받아 American Councils(회장 댄 데이비스)와 협업체 National Examinations in World Language(NEWL-Korean) 시험 대비를 위한 교사연수를 2월 4일 개최했다.

이 워크샵에는 남가주 일대의 고등학교 한국어반 교사 20여명이 참석해 뉴얼한국어시험의 출제 방향과 샘플테스트 문항들, 앞으로의 전망 등에 대해 자세한 질의응답과 준비과정에 대한 강의를 경청했다.

데이비스 AC 회장은 2015년도에 College Board는 뉴얼한국어시험을 대학에서 학점 인정하는 한국어 시험으로 승인한 바 있어 장래에 AP Korean 대응으로 사용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UCLA와 하와이 주립대학 등 다수의 대학에서 이 시험을 입학 사정이나 Placement 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고려중이라고 말했다.

뉴얼한국어시험은 미국에서 외

국어교육에서 가장 권위가 있는 ACTFL 스탠다드에 맞춰 개발된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영역에서 약 100문항을 3시간에 걸쳐서 테스트하는 한국어온라인시험이다.

이 테스트는 AP 테스트들과 똑같이 1부터 5점으로 채점되며 예를 들어 3점을 받으면 대학에서 2학기를 면제받고 3학기부터 수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5점을 받으면 4학기 면제받게 되므로 2년 외국어 수강을 수료하게 된다.

엘렌박 IKEN 공동회장은 2016년 3개 단체(IKEN-KLTA-AC)는 양해각서 MOU를 체결하고 뉴얼한국어시험을 치기 위한 필수코스를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즉 AP 서브젝트 시험과 같이 한국어 코스를 거쳐야만 뉴얼한국어시험을 볼 수 있도록 pre-requisite course work를 명시한 바 있다.

김성순 IKEN 공동회장은 한국어반이 없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IKEN 온라인코스 레벨 4를 선택함으로써 대학에서 인정받는 뉴얼한국어 시험을 볼 수 있게 된

서부교계 게시판

주님세운교회 심령대부흥회

주님세운교회(담임 박성규 목사)는 심령대부흥회를 17일(금)부터 19일(주)까지 개최한다. 강사는 홍은파 목사(부평감리교회).

▲문의: (310)325-4020

월드미션대학교 4차 산업혁명과 세계관 특강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송정명 박사)는 4차 산업혁명과 세계관 특강을 21일(화) 오후 8시 30분에 갖는다. 강사는 켄안 선교사(CEO of PPFF International Global Media & IT).

▲문의: (213)388-1000

코로나감사한인교회 2017 춘계부흥회

코로나감사한인교회(담임 백승찬 목사 1811 S. Lincoln Ave)는 2017 춘계부흥회를 10일(금)부터 12일(주)까지 개최한다. 강사는 지용수 목사(창원양곡교회 담임)이며 일정은 10일과 11일 오후 7시30분, 12일 오전 8시, 10시30분.

▲문의: (951)734-1909

찬양교회 신년축복성회

찬양교회(담임 김성대 목사 3401 W. 3rd St)는 16일(목)부터 19일(주)까지 한국 평촌 양문교회 조영성 담임목사를 초청해 신년축복성회를 개최한다. 주제는 ‘하나님의 권세 있는 자녀가 되라’.

▲문의: (213)383-7284

송정명 목사 출판기념 감사음악회

송정명 목사(월드미션대학교 총장)가 은퇴하며 출간한 ‘우리 함께 걸어 행복한 그 길’ 증보판 출판기념 감사음악회가 18일(토) 오후 5시 미주 평안교회(담임 임승진 목사)에서 열린다.

▲문의: (323)574-2747(노형진 선교사).

세리토스장로교회 2017 춘계부흥사경회

세리토스장로교회(담임 박규성 목사 11841 178th St. Artesia)는 2017 춘계부흥사경회를 ‘내일이 넘치나이다’(시23:5)라는 주제로 10일(금)부터 12일(주)까지 개최한다. 강사는 이용남 목사(장석교회 담임)이며 일정은 금요일 오후 7시30분, 토요일 새벽 6시, 오후 7시, 주일 오전 8시, 9시30분, 11시30분, 오후 2시30분.

▲문의: (562)677-7777, 860-5451

연합감리교회 평신도 제직세미나

연합감리교회 평신도 제직세미나가 월서연합감리교회(담임 황기호 목사)에서 12일(주)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개최된다.

▲문의: (323)931.9133

에스라성경통독사역원 성경일독세미나

에스라성경통독사역원은 ‘2017 통큰통독 정규반’을 오는 9일(목)부터 5월 25일(목)까지 16주간에 걸쳐 매주 목요일에 실시한다. LA지역은 주님의영광교회(오전 10시), 오렌지카운티는 에스라통독사역원 강의실(오전 10시, 오후 7시30분)이며, 강사는 최다니엘 목사, 박용일 목사, 이인석 사모. 등록비는 100달러(교재별도)이며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www.ezrabiblereading.com)에서 볼 수 있다.

▲문의: (562)754-2656

것은 한국어를 제2 외국어로 사용하고 있는 많은 한인청소년들에게 희소식이라고 말했다.

현재 한국어는 미연방정부에서 인정하는 전략언어로 규정돼있어 대학에서 고급 한국어를 배우는 수강생들이 증가함에 따라 연방정부나 주정부에 한인 청년들의 취업의

문이 넓어질 가능성을 시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어온라인코스 등록을 원하는 학생들은 http://www.ikeneducate.org/login로 수시등록할 수 있다.

(기사제공: IKEN)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 김영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현대청년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6:00(일) 영양예배: 오전 9:30, 11:30 www.thanksgivingchurch.com Tel: (714)521-0891, Fax: (714)521-4636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45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성) 주일 5부예배: 오전 11:30 수-금요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lafgusa@yahoo.com / www.lafgc.com Tel: (323)913-4498, Fax: (323)913-4494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나성영락교회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후 1:30 주일 6부예배: 오후 2:30(청년) 새벽기도회: 5:30(월-금), 6시(토)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Fax: (323)227-0718 www.youngnak.com	 나성제일교회 담임목사 : 김본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배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 기도회: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Tel: (213)388-7101, (F) (213)388-6564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나침반교회 담임목사 : 민정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평일목성(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30 금요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11:00 Tel: (562)691-0691, (F) (562)691-0698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 www.nachimban.org	 남가주주둔한교회 담임목사 :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드림)예배: 오후 12:30 주일 4부예배: 오전 10:30 주일 5부예배: 오전 10: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친년예배: 오후 2:00 새벽 기도회: 오전 5:40(월-금) Tel: (213)481-2779 / Fax: (213)481-3761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facebook.com/srscsa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주일 4부예배: 오전 1:20 영양예배(장소: KDC, 킥랜드센터)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 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양예배: 오전 9:30 새벽 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예배: 저녁 7:30 Tel: (310)719-2244, Fax: (310)719-2229 15411 N.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www.dhpc.org	 디아스포라선교회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흠여져 있는 우리의 통증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목요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후 4:00 Tel: (213)559-7728 (전화 팩스 겸용), Tel: (213)210-6890 1213 Gabriel Garcia Marquez St., #B L.A., CA 90033	 미주영광교회 담임목사 :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양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매일) Tel: (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주일 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학생): 오후 11:45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6:00 www.mpcia.org Tel: (213)381-2202, Fax: (213)381-2535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빛과 소금의 교회 담임목사 :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5(월-금) 오전 6:00(토) Tel: (310)749-4756 21519 S. Menlo Ave Torrance CA 90502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 김한요 주일예배 1부: 오전 7:15 주일예배 2부: 오전 9:15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9:15, 11:30 영양예배: 오후 1:30 수요일: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 www.bekc.org Tel: (949)854-4010 / E-mail: bethel@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 김상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예배: 오후 7:30 Tel: (562)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영양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Tel: (213)745-9191(CH), 사택(818)893-8607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요셉선교교회 담임목사 : 정상호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저녁 7:30 금요예배: 저녁 7:3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213)245-4090, Fax: (213)365-1670 1400 Alvarado Terrace East, L.A., CA 90006	 엘바인침례교회 담임목사 : 박경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수요성경기도회: 오후 7:30 www.irvinechurch.org Tel: (949)857-9425 / Fax: (949)857-9472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월서크리스천교회 담임목사 : 엄규서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영아)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전통) 주일 4부예배: 오후 2:00(다문화)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토) 주일 학교: 오전 11:00 토요일영양예배: 오후 6:00 Tel: (213)384-7274, Fax: (213)384-8638 3435 Wilshire Blvd., #101 L.A., CA 90010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성령침례: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세계기도센터: 365일 24시간 온오프 www.gracemc.com Tel: (714)446-6200, Fax: (714)446-6207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주님세운교회 담임목사 : 박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영성)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50(월-토) 성령대명회: 오후 7:20(금) Tel: (310)325-4020, Fax: (310)325-4025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www.juminchurch.com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 Tel: (714)749-4500, Fax: (714)749-6700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www.gcc.org	 좋은마음교회 담임목사 :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아)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영양예배: 오후 1:45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www.socalsamsungchurch.org / e-mail: pastor@acornstone.com Tel: (714)646-9239, Fax: (714)646-9264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아)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www.cornestonelv.com / e-mail: pastor@acornstone.com Tel: (310)530-4040(CH), Fax: (310)530-8400 2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토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 김바울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아)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E) 새벽기도회: 오후 3:00(월-금) 창세우배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www.torrancegcc.org Tel: 310-370-5500, Fax: (310)370-2009 195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목회와신학, 온라인 설문조사

목회자 4명 중 3명은 목회자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 가입이나 정치집회 참여는 목회자로서 바람직한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월간 목회와신학 2월호는 ‘교회·목회자의 정치 참여, 어디까지 가능한가’를 주제로 지난해 12월 16

등 목회자 20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목회자들의 정치설교’에 대해 반대하는 목회자는 55.8%로 절반을 넘었다. 찬성은 44.2%였다. ‘목회자가 할 수 있는 정치 설교행위’로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신앙적 제안’(46.6%)을 가장 많이 꼽았다.



목회자 4명 중 3명 “목회자의 직접적 정치참여에 반대”

일부터 지난 3일까지 목회와신학 정기 구독자와 페이스북 사용자

이어 ‘사회적 문제에 대한 언급’(31.0%) ‘사회적 문제에 대한 정

치적 의견 표명(11.0%) 등의 순이었다. ‘목회자가 해서는 안 되는 정치 참여 방식’에 대해선 정당 가입

(39.8%)을 꼽은 복수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집회 참여(16.0%), 선거 운동 및 시민단체 활동 참여(각각 10.2%) 등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에 부정적이었다.

이에 비해 (공공)기관에 의견을 제기(2.5%)하거나 공청회 참여(4.2%), 서명운동 동참(5.5%) 등 간접적인 참여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목회자의 정치 참여 찬성 이유는 ‘목회자는 개인 뿐 아니라 사회구원에도 힘써야 하기 때문’(71.1%)이라는 응답이 최다였다. 반대 이유로는 ‘목회자는 국가 권력에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35.5%)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한교연, 신옥주씨 회원 인정했었다 2012년부터 4년간 활동 확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가 이단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대화할 수 있다”던 한국교회연합(한교연)이 이단으로 규정된 신옥주씨를 최소 4년 이상 꺼안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정과 조직구조, 신학검증이 취약한 군소교단들은 이단의 유혹 앞에 흔들리기 쉬운데도 한교연은 제대로 된 검증이나 관리감독 없이 회원으로 방치했다.

신씨는 특유의 비유풀이와 ‘예수는 피조물이다’ ‘130여년간 한국의 모든 목회자들이 마귀에게 속아왔다’는 등의 잘못된 신학으로 2014년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에서 이단으로 규정됐다. 2015년 예정고신, 2016년 예정합동에서 각각 참여금지 및 교류금지를 결의했으며, 예정

통합도 2016년 이단성이 있다고 결정했다. 신씨는 환란과 기근에 대비할 수 있는 피지(彼地)가 남태평양의 섬나라 피지라면서 수백 명의 신도와 함께 피지에서 집단생활을 하고 있다.

이처럼 잘못된 이단사상을 갖고 있는 신씨를 한교연으로 끌어들이는 장본인은 당시 한교연 바른신앙수호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박요한 목사다. 2012년 한교연 소속으로 예정해외합동 서북노회장을 맡고 있던 박 목사는 신씨를 부노회장으로 영입했다. 그리고 “신씨의 이단 관계설은 혐의가 없다”는 판결까지 내렸다. 박 목사는 2014년 한교연 대표회장을 역임한 인물을 설교자로 초청, 충북 제천에서 입당감사에

배 및 서북노회 정기노회를 개최했는데 이 자리에는 신씨도 직접 참석했다.

이단 의혹이 끊이지 않자 신씨는 같은 해 10월 잠시 교단을 탈퇴했다. 그러나 2015년 예정합동총신 서북노회 소속으로 다시 등장했다. 당시 예정해외합동과 예정합동총신의 총회장은 동일 인물이었고 양 교단은 서로 이중 교적을 인정했다.

박 목사는 “신씨가 2012년 우리 교단에 잠깐 있었지만 이후 스스로 탈퇴했다”면서 “예정합동총신에 있던 내 제자들이 신씨를 도와주려 했지만 신씨가 ‘합동총신에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기 싫다’면서 탈퇴하고 피지로 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결국 ‘한기총의 선(先)이단 문제 해결’을 줄기차게 요구했던 한교연도 2012-2015년 회원교단 안에 이단문제가 있었던 셈이다. 한교연 법

인이사 신분인 박 목사는 “신씨 문제는 현재 정리가 됐기 때문에 한기총 내 이단문제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단전문가들은 이단들이 군소교단에 편승해 침투하고 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형택 한국기독교이단상담연구소장은 “최근 이단들이 재정과 조직구조가 열악한 군소교단을 통해 중대형 교단과 연합기관에 잠입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건전한 신학교를 운영하는 교단 중심으로 연합을 이루고 각 교단의 이단대책위원회가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한교연 한국기독교통합추진위원회는 2일 모임을 갖고 한기총에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연합논의를 진행하자’는 공문을 발송키로 했다.

주요 기독교대학 신학과, 2017 정시 줄줄이 마달 기독교대학들 잦은 분규에 목회자 향한 시각 악화도 영향

기독교대학 신학과(신학부) 지원자가 급감하고 있다. 일부 대학은 정시모집에서 미달사태가 빚어져 추가모집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신학과 졸업생 대부분이 신학대학원을 거쳐 목회자가 된다는 점에서 향후 목회자 수급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신학과 지원학생이 줄어든 데는 학령인구 감소와 다음세대 크리스천들의 신학교 지원 기피가 주원인으로 지목된다.

7일 인터넷 대학원서 접수 사이트인 진학사 등에 따르면 2017학년도 정시를 기준으로 기독교대학들의 신학과(신학부) 지원율은 전반적으로 저조하게 나타났다. 감리교신학대(0.99대 1)와 한영신학대(0.81대 1) 고신대(0.92대 1) 침신대(0.79대 1) 아세아연합신학대(0.81대 1) 등은 지원자 수가 정원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기독교대학들도 지원율은 높지 않았다. 장신대는 25명 모집에 59명이 지원해 2.3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성결대는 34명 정원에

60명이 지원, 1.7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총신대는 2.67대 1, 한국성서대 1.30대 1, 목원대 2.20대 1, 안양대 2.88대 1, 서울신대 2.09대 1, 한세대 2.78대 1, 나사렛대 1.40대 1 등으로 나타났다. KC대(5.60대 1)와 서울장신대(3.70대 1), 평택대(3.13대 1)는 다소 높았다.

이들 대학의 원서 접수는 모두 마감된 상태다. 미달된 학교의 경우 추가 모집 등을 고려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학 관계자는 “대부분 학교들이 수시 모집에서 70%를 뽑고 나머지는 정시에서 선발한다”며 “이 때문에 정시 지원은 수시에 비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학과 지원 감소 현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신학과 지원율이 떨어지면서 신대원 지원자도 점차 감소하고 있다. 한국성서대 관계자는 “기독교대학이나 신학교들이 예년에 비해 (신학과) 지원이 줄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학령인구 자체가 감소하고 크리스천 청소년 지원

주요 기독교 대학 신학과 2017년 정시 모집 경쟁률	
학 교 명	경 정 률
감리교신학대	0.99:1
KC대	5.60:1
장로회신학대	2.36:1
총신대	2.67:1
한국성서대	1.30:1
한영신대	0.81:1
고신대	0.92:1
목원대	2.20:1
침례신대	0.79:1
서울신대	2.09:1
서울장신대	3.70:1
성결대	1.76:1
아세아연합신학대	0.81:1
안양대	2.88:1
평택대	3.13:1
나사렛대	1.40:1
한세대	2.78:1

(자료:진학사)

도 계속 줄어드는 게 이유”라고 말했다.

통계청이 지난달 8일 발표한 인구추계에 따르면 대입 학령인구는 2015년 66만명에서 2020년 51만명, 2025년에는 45만명, 2065년엔 22만명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에서도 이를 감안해 2023년까지 대학 정원을 16만명 감축하는 대학 구조개혁에 나섰다.

최근 기독교대학이나 신학교의 잦

은 분규, 목회자를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도 지원에 영향을 주고 있다. 총신대 A교수는 “학내 문제는 학생들의 지원 감소는 물론이고 후원 측 소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며 “신학교와 목회자를 바라보는 사회의 굵지 않은 시선도 지원 감소 원인”이라고 말했다.

대학의 신학과는 학교 설립 정신에 입각해 경건한 신앙 인격과 신학의 기초를 형성하는 교육 목표를 갖는다. 커리큘럼은 일반 교양과목을 비롯해 현대 외국어와 고전어, 기초신학, 철학, 역사, 사회봉사 등이다. 목회자나 신학자, 선교사가 되기 위한 기초과정이라는 점에서 교회봉사와 다양한 이론 및 실천 훈련도 한다.

박상진(장신대 기독교교육학) 교수는 신학과와 학생선발 단계에서부터 전통적 목회 범주를 탈피해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박 교수는 “기존 목회현장은 이미 목회자들이 과잉 공급돼 넘쳐난다”며 “지금은 목회의 개념 자체가 변하고 있고 다양한 분야의 리더가 필요한 만큼 커리큘럼과 선발 과정의 변화 등을 통해 지도자를 길러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회) 박병석(영양서부교회) 이덕진(서울 명문교회) 목사다.

이어 이사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예정) 합동(총회장 김선구 목사)측에서 추천한 명단을 바탕으로 11명의 일반이사 선출에 나섰다. 추천 후보는 소강석(경기도 용인 세에덴교회) 권순웅(경기도 화성 주다산교회) 고영기(서울 상암월드교회) 김종준(서울 꽃동산교회) 배광식(울산 대암교회) 이승희(대구 반야월교회) 박재신(전주 양정교회) 서한국(광주남부교회) 김희태(서울 동광교회) 양대식(전주 성남교회) 목사, 김진길(대구 북성교회) 장로였다. 하지만 투표 결과 단 한 명도 당선 정족수인 8표 이상(이사회 재적의 과반수)을 얻지 못했다.

신길교회 원로목사 추대 및 담임목사 취임 감사예배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에 있는 '신길교회 이신웅 원로목사 추대 및 이기용 담임목사 취임감사예배'가 5일 오후 4시 교회 2층 대예배실에

서 열렸다. 임시당회장 김성한 목사 외 교인 일동은 초청장에서 "신길교회는 성역 48년 동안 말씀탐구와 선포, 복

음전에 전심전력하고 교단 총회장을 역임한 이신웅 목사를 원로 목사

에 추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성경 복음의 전통, 그 성령사역의 적통을 이을 적임자이자, 다음세대 신앙교육에 남다른 비전과 실천적 역량을 겸비한 이기용 담임

목사 취임예식을 갖고자 하오니 함께 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면 감사에 추대한다"고 말했다.

이신웅 목사는 1984년 4월 24일 신길교회 제8대 담임목사로 부임했다. 그의 48년 목회 중 23년을 신길교회에서 시무했다.

국민연금연구원 '성직자 노후 보장' 실태조사

국내 목회자의 소득 수준이 우리나라의 4인 가구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노후준비 수단으로 목회자의 절반 정도가 교단연금(연금) 제도를 꼽았지만 4명 중 1명은 노후준비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사 수입, 최저 생계비의 75%	‘노후에 대해 걱정한다’는 목회자(34%)가 ‘걱정하지 않는다’는 목회자(23.3%)보다 많았다. ‘보통’이라고 답한 이들은 42.7%였다. 목회자 10명 중 7명 정도(71.2%)는 은퇴한 뒤 겪게 될 어려움으로 ‘경제적 어려움’(40.5%)과 ‘건강 악화’(30.7%)를 꼽았다. ‘무위(無爲)로 인한 고, 불교 성직자 등 798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	---

목회자들 팍팍한 삶 은퇴후 더 막막…

월평균 수입 202만원 최저생계비에도 미달

대한예수교장로회(예정) 합동 및 통합, 기독교대한감리회, 한국기독교장로회 등 4개 교단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목회자의 월평균 수입은 202만 1000원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제시한 2017년 4인 가구의 최저생계비(기초 중위소득 60%)인 268만428원의 4분의 3 수준(75.4%)이다. 우리나라 국민이 기초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조차도 벌어들이지 못할 정도로 팍팍한 삶을 감내하고 있는 것이다.

소득 구간별로는 200만~250만원 미만이 31.7%로 가장 많았다. 이어 250만원이상(24.8%), 150만~200만원 미만(19.1%), 50만~100만원 미만(5%) 등의 순이었다. 목회자들의 월평균 지출액은 131만6900원이었다. 지출 항목별로는 식비(57.6%)가 가장 많았고, 교통·통신비와 교육비, 주거비 등이 많이 든다고 중복 응답했다.

“은퇴 뒤 건강·생계 걱정” 70%

은퇴 후 목회자들의 주된 고민거리로 제시됐다.

‘현재 준비 중인 노후대비 수단’으로는 목회자 2명 중 1명 정도(49.6%)가 교단 은급제도를 중복으로 꼽았다. 기초·국민연금 같은 공적 연금제도(34.7%)와 개인연금·저축 등 개인적인 준비(21.8%) 등이 뒤를 이었다. ‘노후준비 수단이 없다’는 응답도 26.3%를 차지했다. 은퇴 후 가족으로부터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는 응답이 88.9%였다. 가능하다는 목회자는 11.1%에 그쳤다.

교단 은급제도는 개신 교단 가운데 8개 교단이 운영 중이다. 평균 가입률은 48.6%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조사를 총괄한 국민연금연구원 유희원 연구원은 “주요 개신교단들의 은급 제도는 상대적으로 급여수준이 높고 위험분산 범위가 좁아 고령화에 따른 재정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재정 안정화 조치와 함께 교단·교회 규모에 따른 노후소득보장 수준의 격차 문제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요 교단 연금·은급제도 실태 조사

불안한 목회자 노후... 횡령·소송 열풍

목회자들의 노후는 불안하다. 그러나 국내 교단 중 연금 또는 은급 제도가 있는 곳은 대한예수교장로회(예정) 합동, 통합, 고신,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 기독교대한성결교회(기성), 예수교대한성결교회(예성),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기하성) 등 8개 교단뿐이다. 연금 가입자 수는 전체 가입 대상자의 절반도 안 된다.

연금 가입자 수와 자산은 예정통합 총회연금재단이 2016년 말 기준 1만 3794명, 3860억 원으로 8개 교단 중 가장 많다. 은퇴 목회자 708명 등 총 836명이 연금급여를 지급받고 있다.

8개 교단 연금가입자실무자협의회에 따르면 각 교단의 가입률은 연금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는 기감이 95.2%로 가장 높았다. 이어 예성(92.5%)과 기성(82.0%)이 뒤를 이었다. 예정합동의 경우 5.5%에 그쳐 가장 낮았다.

예정합동·통합·고신 교단 등은 매월 표준호봉의 10~18%를 납입토록 하고 있다. 기감은 시무년수 1년 당 2만3000원씩 계산해 20년 시무했을 때 월 46만원씩 받는다. 기하성은 월평균 연금 불입액의 130%를 수령한다. 연금 수혜자 수는 기감이 1714명으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 예정통합(836명), 기성(684명) 등의 순이다.

8개 교단 외에 기독교한국침례회(기침)는 연금제도 마련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기침 유관재 총회장은 최근 열린 교단발전협의회에서 목회자 은급금 지급을 위해 침례교인 1인당 10만원씩 10만 명이 연금하는 운동을 교단차원에서 전개하자고 제안했다.

연금·은급제단을 유지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다. 각 교단은 기금 운용과 관련해 발생한 크고 작은 문제에 맞서 제도 정비 또는

법적 소송 등을 진행하며 안정화를 꾀하고 있다. 예정통합 총회연금재단의 경우 2012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대출브로커를 통해 약 2000여원을 고위험 상품에 투자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거센 비난을 받았다. 급기야 2015년 10월엔 수급자들에게 연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파행을 겪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예정통합은 2015년 100회 정기총회에서 연금재단 이사회의 직접 투자 및 대체투자 운용금지와 기금위탁운용을 결의했고, 현재 시행 중이다.

예정합동은 은급재단 운영과 관련해 14년째 끌어오고 있는 벽제 중앙추모공원(납골당) 문제를 놓고 해결방안을 고심 중이다. 2003년 은급재단 전임 이사장 등이 납골당 매입을 위해 은급기금을 이사회 결의 없이 불법 대출하면서 문제가 확대됐다. 당시 은급재단 이사회는 고인 물대 납골당 사업자인 ‘벽제 영산추모관’에 20억원에 대출해 주는 등 편법으로 기금을 증식하려다 적발돼 물의를 일으켰다.

그동안 ‘소유권 이전’ ‘처분금지 가처분’ 등 납골당 관련 소송도 100여 건이 진행됐다. 회계법인의 평가를 무시하고 140억원에 사들인 납골당을 3개월 만에 90억원이라는 할감에 매각하는 등 상식 밖의 일도 잇따랐다. 예정합동 은급재단이사회는 납골당 공동사업자 최모씨를 상대로 관리·운영권 회수를 위한 명도소송을 진행키로 했다.

기하성의 경우 2007~2008년 교역자연금공제회의 전임 이사장 등이 삼성생명에 예치된 재단 적립금을 담보로 이사회의 결의 없이 83억 5000만원의 대출을 받아 횡령한 사실이 최근 드러났다. 공제회는 대출자금을 유용한 전 임원 3명과 보험계약을 권유한 삼성생명 금융설계사(FC)를 형사 고소했다.

교토소 선교칼럼 (14)



교토소 교육, TPPM대표
이영희 목사

주님이 주신 은혜의 만남

변화 프로젝트 교토소 문서선교는 비영리 단체로서 신앙서적들을 출판하여 교토소와 노숙자 보호소에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사실 집필과 출판 사역은 저의 개인적인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제게 책으로 쓰라고 하신 말씀에 대한 저의 순종일 뿐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교토소 밖에 자원 봉사자들뿐만 아니라 교토소 안에서 많은 이들이 이 사역에 동참하여 함께 사명을 감당하도록 축복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교토소 안에서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25세의 여자 재소자, M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M은 아주 아름답고 소녀같이 어려 보이지만 사실은 남편과 두 아이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처음 교토소에 들어오면 그 충격으로 오랫동안 악몽에 시달리며 영적인 공격을 받곤 합니다. 또, 장기 복역을 해야 하는 사람들은 자살 충동에 시달립니다. 게다가 교토소 안에는 살아오면서 겪은 여러 가지의 상처로 인한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토소에서 재소자들이 힘들어 하는 또 하나의 경우는 최종판결을 받아 복역 기간이 확정되어야 하는데 그 재판을 기다리는 기간이 너무 길어질 때입니다.

M 역시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M은 중범자들이 갇힌 감방 안에서 언제가 될지 모르는 재판을 오랫동안 기다리며 절망적인 생각과 우울증, 그리고 자살충동에 시달렸습니다. 그런 중에도 그녀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으며 변화프로젝트 책의 원고 교정과 이미 쓰여진 저의 글에 말씀 묵상과 기도를 첨부하는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너무 바쁘고 지쳐 있었을 때 제가 할 수 없는 일을 M이 도와주었고 글을 아주 잘 쓰므로 그녀는 제게 큰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사실 M의 도움이 없었다면 책 출판이 더 오래 걸렸을 텐데 그녀의 계속적인 도움으로 출판이 계속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M은 네 권의 책을 수정하였고 세 권의 책에 내용을 첨부하는 글들을 써주었는데 그러한 과정 가운데 그녀의 신앙이 서서히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M을 만나 나와 함께 동역해 주어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전에는 늘 초조해 하며 나의 눈을 피하던 그녀의 얼굴에서 안정감과 편안함 그리고 기쁨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전에 볼 수 없었던 희망의 눈빛으로 평소에는 하지 않았던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요즘 얼마나 기쁨 속에서 사는지 몰라요. 출판 사역을 돕는 것이 저의 영적 성장에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저는 글을 쓰기 전에 성경을 놓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쓰기를 원하시는지를 기도해요. 그러면 주님께서 제가 글을 쓸 수 있도록 말씀을 주세요. 그 많은 성경 구절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이제 하나님께서 제게 더욱 분명한 음성을 주세요. 얼마 전 저는 편지를 기다리는데 편지가 오지 않아서 제가 그에게 편지를 써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편지가 올 거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날 제게 편지가 왔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제게는 큰 기쁨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저에게 신앙간증 책을 쓰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까요?”

제게도 너무나 큰 기쁨이 몰려왔습니다. 사실 저도 M이 자살충동에 시달리다 정말로 자살을 하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은 M을 방문하여 위로하고 기도해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녀를 방문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왔다고 하면 그녀는 자신에게 목사님을 보내시는 하나님에 대해 의아해하는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가우뚱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M이 신학공부를 한 것도 아닌데 제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잘 감당하고 책들이 더 빨리 진행되도록 감방 안에서 열심히 성경을 찾으며 묵상과 기도의 글을 쓰

고 있다는 것은 그 누구도 상상하기 힘든 일입니다.

M은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같이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마귀가 종종 파괴적인 음성으로 자신을 괴롭힌다고 고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계속 초점을 맞추며 기도생활을 하면서 M은 마귀의 공격을 이기며 치유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에 그녀에게 신앙 간증을 쓰도록 권유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습니 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간증을 쓰라고 말씀하시고 그녀도 쓸 준비가 된 것입니다. 저는 M에게 어떻게 책을 쓰는가에 대해 설명해주고 그녀의 신앙 간증이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거라고 격려했습니다. M은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분이세요!” 라고 하며 아름다운 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한 그 감탄으로 글을 시작하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위대한 분이십니다. 더욱 놀라운 일은 M이 하나님과 친밀해지면서 다른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저희 기도 모임에서 한 여자 재소자는 M이 자신을 영적으로 얼마나 많이 도왔는지 모른다면 눈물을 흘리며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보면서 미소만 지을 뿐입니다. 현재 교토소 안에서는 교토소 밖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성령님의 치유하심과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은 법이 엄해서 만일 M이 살인으로 판결을 받게 되면 그녀는 오랫동안 교토소에서 살아야 하며 교토소를 영영 나오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들어가면서 삶의 의미와 기쁨을 찾아서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돕기 시작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교토소 사역을 통해 볼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주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M은 이제 교토소 안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M이 신앙 간증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녀와 같은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깊이 만나도록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재소자들이 주님의 복음의 일꾼이 되어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오직 주님께서 만 우리에게 삶의 의미와 기쁨을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막2:17).

yonghui.mcdonald@gmail.com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 제 2회 독후감 응모전 장려상 수상작 (5)



뉴저지 그레이스커뮤니티채플 | 김태길

세상을 본받지 않을 때 보이는 하나님의 성실하심
- “직설”을 읽고

최근 몇 년 사이에 한국 기독교는 그 위상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몇몇 목회자들의 불미스러운 모습과 물질주의에 물든 교회의 현상이 복음의 본질을 가려서 20-30대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 과연 한국의 기독교는 이렇게 쇠퇴하여 유럽의 교회처럼 사라지는 것은 아닌가 라는 위기감이 드는 현실이다. 개혁과 각성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기독교인 모두가 동의하지만, 행동으로 옮기기에 앞서 현실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그 원인을 찾는 작업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고장 난 한국 기독교에 대해 개인적으로도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해 명료하게 판단할 수가 없어 혼란스러웠다.

처음 이 책에 대한 출간소식을 듣고 책 미리보기를 통해 목차를 보면, 대략 시절 읽었던 박영선 목사님의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서적에 나타났던 저자의 신앙과 성경에 대한 논리적이고 탁월한 시각이 대화라는 형식을 통해 어떻게 구현되었는지 궁금해졌다. 또한 책속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가 “삶” “신앙” “교회”라는 원론적인 부분이라는 점도 이 책에 대한 흥미를 더하게 하였다.

책은 240페이지의 많지 않은 분량으로 구원 이후에 마주하게 되는 “삶에 대한 고민”, “신앙(믿음, 하나님, 교회, 죄)에 대한 이해” 그리고 “교회(목회자)를 희망하다”라는 카테고리로 나누어져 있다. 이러한 대담을 수록한 책의 경우, 진행자의 중간 중간의 질문과 내용, 정리가 독자의 공감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인데 김관성 목사님은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신 것 같다. 목회자의 입장이 아니라 기독교인의 한 일원으로서 솔직한 고민과 박영선 목사님의 대답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부연적 설명을 요청하는 질문들은 읽는 독자로 하여금 책에 더 몰입할 수 있게 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

펴보면, 첫 번째 주제인 “삶을 묻다”에서 구원 이후 우리가 직면해야 할 질문 “삶의 구체적인 고민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답을 찾아가야 할까요”로 시작된다. 박 목사님은 세상이 추구하는 성공이라는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밀어주시는 동행의 가치관을 품고, 삶이 주는 결과를 보지 말고 살아가라고 권면하신다. 이 개념은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신앙이 기복적 색채가 짙었기 때문이다.

김관성 목사님도 질문가운데 “한국교회가 너무나 단선적인 신앙만을 추구하여 기도하면 응답받고, 고통이 있으면 기도해서 해결 받으라고 가르쳐왔기 때문에 박 목사님의 말씀이 이해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고 답한다. 이에 대해 박 목사님은 하나님이 우리보다 크시고 먼저 일하신다는 직설로 첫 번째 대답을 마무리하신다. “우리 기독교 신앙 이해에서 우리보다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고, 매일 인생과 역사를 여시고 개입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이끌고 지키신다는 것이 먼저 강조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이해와 순종은 보상을 받는 조건이기보다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맞는 존재와 가치를 가지는 것이지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이요 그런 완성체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앙을 말하다”에서 하나님이 우리보다 크신다는 대전제 위에 구원, 믿음, 회개 그리고 교회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제시하신다. 인간과 지식과 한계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부어지는 구원, 하나님의 크기, 창조물에 대한 의미, 목적을 이루시는 능력, 내용을 채우시는 기적으로 정의되는 믿음, 우리의 존재감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주실 수 있는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으로 정의하는 자세, 그리고 죄, 용서, 회개를 하나님이

계속 일하고 계신다는 개념으로 이해하라고 하신다. 현실에서 무너져있을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일하신다는 낙관과 가치를 살려주는 것이 가장 필요하고, 그렇게 교회는 다시 힘을 보여 주어야 한다고 하신다.

특히 교회가 생명력을 역사 가운데 유지하는 것을 해석하는 방법론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박 목사님은 “교회는 어떤 강제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각각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유지되고 그래서 다른 교회를 비난하는 것보다는 자신이 한 일을 책임지고, “우리 교회는 이런 잘못이 없다”라는 은근한 우울감으로 자기의 정체성과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해서는 안된다”고 하셨다.

실제 현재 기독교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나쁜 상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더크고 각자를 돌아보는 성찰의 자세는 찾아보기 어렵다. 다른 교회의 아픔에 대해 동참이 아니라 그 고통을 우리의 가슴으로 삼았던 것은 아닐까? 이게 세상의 풍조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 벌어지는 현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세 번째 “교회를 희망하다”에서 대답의 초점이 목회자의 자세와 고민으로 옮겨갔다. 급속히 변화하는 사회의 환경 속에 목회자의 스승에 대한 이해, 설교에 담겨져 할 내용, 목회자의 리더십의 방향, 현실 속에서 목회자가 추구해야 하는 정체성에 대해 어떤 대답보다 자세히 그리고 박 목사님의 실제적인 경험과 한국 역사에 대한 개인적인 통찰력이 더해져서 탁월한 안목을 느낄 수 있는 대화록이었다. 개인적으로는 평신도의 입장인지라 사뭇 이러한 내용들이 현재 출석하는 교회에 대한 목회자를 비판하는 잣대로 사용되어지지 않도록 전체적인 그림만을 이해하려는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했다.

책은 한손에 들고 다닐 만큼 가벼웠지만, 내용은 어떤 서적보다 무거웠다.

(14면으로 계속)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2017년도 목사 학력 및 자격고시 공고

The General Assembly of Korean-American Presbyterian Church

2017 Pastoral Ordination Candidacy Qualification and Examination Announcement

“목사 학력 및 자격고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자는 아래 요령과 같이 지원 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든 서류와 시험은 한글과 영어 중 편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응시 자격 (Candidacy Qualification)

본 총회 적령 신학교 및 총회가 인준한 장류 신학교 M.Div 학위를 졸업 하였거나 2017년 6월 이전에 졸업 예정자로 개혁주의 신앙이 투철한 무종교인으로서 확실한 소명과 영적지도를 가진 분.

2. 고시 일자 및 장소 (Examination Date and Place)

- 1) 고시 일자: 2017년 5월 12(금) - 15(월)
- 2) 고시 장소: Anchorage, Alaska USA

3. 고시 과목 (Examination Subjects)

- 1) 필기고시 : (1) 교회사 (2) 조직신학 (3) 미국장로교회사 (4) 헌법(이상4과목)
- 2) 제출고시 : (1) 구약주해 (2) 신약주해 (3) 논문 (4)설교원고 (이상4편)

제출고시 내용

- (1) 구약 주해 - 예레미야 31:31-37
- (2) 신약 주해 - 요한복음 8:13-27
- (3) 논문 제목 -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신앙을 비교하고 그것이 신앙생활에 미치는 함축적의미를 논하라.
- (4) 설교 본문 - 열왕기상 2:1-9
 - ① 설교 원고를 작성하여 제출 할 것.
 - ② 고시 기간 중 설교설기교시를 지름.
- (5) 제출 고시 과목에 관한 요령- * 표절은 절대 용인되지 않습니다!!!
주해 및 논문은 아래지침에 따라 작성하되, 한부는 인쇄하여 제출하고, 한부는 PDF 파일로 서기에 이메일 할 것.
 - ① 레터 (8-1/2" x 11") 용지를 사용 할 것.
 - ② 한글 11호 크기의 폰트 사용, 줄 간격 180%, 여백은 1인치, 페이지 번호 포함 할 것. (영문 Times New Roman 12호 Double Space)
 - ③ 논문과 주해는 각각 25매 내외로 작성(필장과 참고서적 제외)하며, 설교 원고는 30분 분량의 원고 (10매 정도).
 - ④ 논문과 주해는 논문 작성 원칙에 따를 것이며 인용구는 각주를 사용 하고 참고서적을 꼭 포함 할 것.
 - ⑤ PDF 파일을 보낼 때는 이메일 제목에 본인이름을 넣고, 파일이름에 본인이름 및 과목 주제 이름을 사용 할 것. (예: SunghoonChoOTExegesisPaper.pdf)
 - ⑥ 파일이 너무 크면 나누어서 이메일로 보낼 것.

3) 면접 고시

4. 응시 서류 (Accompanying Documents)

- 1) 신학교 졸업 증명서 또는 2017년 6월 이전 졸업예정 증명서, 학교장 확인서 중 1부.
- 2) 신학교 전 과정 성적증명서 1부
- 3) 소속 노회장 추천서 1부
- 4) 소속노회 목사후보생 증명서 1부
- 5) 이력서(자세한 신력을 기재해야 함) 1부
- 6) 명함판 사진 2장
- 7) 고시료: \$150 (USD) Pay to the order of - KFPCNY

5. 서류 제출 요령 (Instructions for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Submission)

- 1) 모든 응시 서류 및 제출고시 과목 원고는 2017년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함. (2017년 3월31일 자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것은 유효함. 그 이후는 접수하지 않음.)
- 2)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3) 합격자 발표는 41회 총회기간(5월16일-19일) 중에 합격증서 수여함.

6. 참고 사항 (Miscellaneous Information)

- 1) 고시생은 고시부 서기 조성훈 목사에게 연락하여 시험기간(5월 12일-15일 총회고시장소) 중에 사용할 숙소를 예약 할 것.
- 2) 고시당일 노트북 컴퓨터를 사용하여 고시를 볼 수 있으나 아래 사항을 지킬 것.
 1. Word Process 이외의 모든 program은 고시장소에 들어오기 전에 지울 것.
 2. 시험 중에는 화면을 절대로 바꾸지 말 것. 허락 없이 화면을 바꾸면 퇴장 당함.
 3. 프린터는 제공되지 않으므로 본인 책임지고 준비 할 것.

7. 응시 서류 및 제출 과목 원고 제출처 (Submission Address)

고시부 서기 : 조성훈 목사 (Rev. Sunghoon Cho) / Email : kfpcny@gmail.com
주소: 37-60 61st Street Woodside, NY 11377 U.S.A. / 전화: (718) 986-8442

8. 기타 문의 (Contact Persons for Information)

- 1) 고시부 부장 : 허윤준 목사 (718) 637-1470, jameshur63@hotmail.com
- 2) 고시부 서기 : 조성훈 목사 (718) 986-8442, kfpcny@gmail.com
- 3) 고시부 회계 : 조충렬 목사 (845) 598-6757, drjho@hotmail.com

총회장: 고택원 목사

서기 : 허상희 목사

고시부 부장 : 허윤준 목사

고시부 서기 : 조성훈 목사



살롬의 교육학(14)

Shalom



이희갑 목사
(아주사범시립 대학교 교수)

지금은 영성 개발에 집중할 때!

오늘의 교육위기는 아이들의 영성을 소홀히 했기 때문!

1983년 레이건 대통령 시절 미국의 교육을 자성하는 매우 중요한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위기에 처한 나라: 교육개혁의 절박성(A Nation at risk: The Imperative for educational reform)’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당시 미국의 교육이 절대 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대로 가면 미국의 미래가 걱정된다는 이야기였다.

미국은 처음으로 당시 학생들의 학업 성적이 그들의 아버지 세대에 비교하여 뒤떨어지고 있으며, 예를 들면 1963-1980년 사이 SAT 시험의 말하기 영역은 50점, 수학의 경우 40점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 뒤로 엄청난 재정과 관심이 미국교육의 부흥과 개혁을 위해 사용되었다. No Child Left Behind 혹은 최근의 Common Core Standards에 이르기까지 많은 법안들이 통과되어 미국교육의 부흥을 부르짖고 있으나 그 결과는 그리 긍정적이지 못한 것 같다. 왜 그런가? 뭐가 잘못 되었을까? 많은 교육 이론가들이 그 이유를 찾고 있지만 근래 한편으로부터 들려오는 이야기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것은 점차로 소외되거나 빠지고 있는 미국교육의 영성에 대한 부분이다. 예를 들면 교육학자인 Nord의 분석에 의하면 미국 공교육에서 발생하는 폭력과 갈등, 심대의 미혼모 문제, 갭 활동, 왕따 현상의 근본적 문제는 학생들의 영적인 공허감 혹은 영성의 결여에 있다고 보았고 교육심리학자인 Noddings은 미국 학교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대안은 교사들의 사랑과 영성으로 무장된 마음이 학습현장에서 아이들에게 향할 때 문제를 치유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진단하였다. Rachael Kessler 역시 교육현장에 나에 대한 자각을 심어주는 훈이 있는 교육을 통하여 아이들이 모든 영역에 성공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성이란 무엇인가? 영성이란 자신을 둘러싼 세계 및 환경의 초자연적 상황/존재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탐색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탐구에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탐구, 나와 다른 사람들간 관계 탐구, 그리고 나와 다른 피조물간 관계를 탐구하는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영성을 위한 기독교 교육의 과정을 설계할 때 Roger White(2012)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가르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표1 참조〉
결국 영성이란 체계적인 개념으로 논리, 도덕적 사고, 남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세계 질서를 이해하고, 권위에 순종하며, 사회적 자각, 상징적 기능을 하는 것으로 파악함. 영성은 체계적이어서 많은 구조가 함께 모인 개념, 예를 들면 도

덕적 사고, 감정, 행위의 세 가지 개념. 도덕적 사고라 함은 도덕적, 영적 판단력, 의사결정 능력을 말함이고 도덕적 감정은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지역사회 및 공동체를 위한 아픔, 동일시하는 태도, 그리고 도덕적 행위는 윤리적 사고에 기초하여 자신의 삶을 행동 짓는 것을 말한다.

영성의 발달은 한 사건으로 끝나는 단편적인 현상이 아니라 일생 동안 주님을 계속 닮아가는 점진적 과정이라는 것이다. 신학자 Ortberg에 의하면 영성 발달은 하나님의 주도로 각 개인들이 참여하는 일생에 걸친 근원적인 과정이라고 정의하는 것에서 알 수 있

다. 왜 영성 개발이 중요한가? 첫째, 영성은 학생들에게 옳고 그름, 삶의 방향과 가치관을 심어주는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내가 누구인가? 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정의와 불의를 어떻게 구별 지을 수 있는가? 가치 있는 삶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등에 대한 탐

하고 있다.

영성 발전의 단계

영아기에서의 영성 발달
영아기에서는 부모님 혹은 영아들을 위하여 신뢰와 애착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라난다. 부모님들의 관심, 보호, 항상 돌보심 등은 결국 나중에 아이들이 자라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James Fowler는 이러한 영성 단계를 원초적(primal) 혹은 미분화된(undifferentiated) 믿음이라고 불렀다. 따라서 이때는 여전히 부모님의 도움과 보호를 통하여 세계

이들의 영적 발달은 한층 더 심화한다. 인지 발달이론을 주장한 스위스 심리학자인 Jean Piaget에 의하면 이때는 아이들이 구체적 조작 단계(concrete operational stage)에 들어가는 시기이다. 이때는 시간, 공간, 우연성 등의 현실감을 아이들이 확립해가는 단계여서 영성의 발달도 아이들이 구체적으로 듣고 경험하는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기이다.

그래서 이 단계를 James Fowler는 신화적, 그러나 글자 그대로를 믿는(mythic-literal faith) 믿음의 단계라고 불렀다. 이 단계의 아이들은 대략 이렇게 표현한다.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은 늙으신 할아버지라고 생각해요. 또는 야구시합에서 심판, 혹은 정치하는 사람, 잘못된 사람을 혼내주는 경찰관이지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핵무기를 사용하는 사람이지요. 왜냐하면 사람을 죽이니까요. 그 사람에게 지구, 우리가 사는 곳을 보호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말라고 말할 거예요.”

Barna(2003)의 연구에 의하면 아이들의 영성, 도덕성의 발달은 보통 9살 전후해서 틀어 잡혀져 간

생기고 대인간 관계의 중요성도 매우 강화되는 시기이다. 그래서 James Fowler는 이 시기를 종합적, 인습적 신앙(Synthetic-conventional faith)의 단계로 불렀다.

사춘기 후반 특히 고등학교 시절부터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는 문제가 영적 정체감에 대한 것이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에게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 등의 고민을 수없이 반복한다. 이를 기초로 사람은 자기 고유의 영적 가치와 헌신을 구축하여 성인의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James Fowler는 이 단계를 개인성찰적 신앙(individual reflective faith)이라고 불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성인의 영성 발달은 인생의 많은 경험과 어려움을 통하여 의미를 파악하고(이를 James Fowler는 연결적 신앙, conjunctive faith) 그리하여 가장 성숙된 영성의 단계인 보편적 신앙 단계(James Fowler는 universalized faith라고 부름)로 접어들게 된다.

자손에게 가르쳤다.

우리도 마찬가지로이다. 가족/교회 달력을 만들어 가족/교회 구성원들이 한 해 여러 날들을 특별하게 기억하면서 서로를 믿음 안에서 서로를 격려함이 좋다. 기독교 절기의 의미를 똑바로 가르칠 뿐만 아니라, 한인들의 이민 역사와 그 과정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개입과 은혜, 사랑을 후손들이 느끼도록 가르쳐야 한다. 나아가 교회에서 예배시간에 아이들이 영성 발달을 위하여 잘 기획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각 주일마다 새로운 테마를 만들어 아이들에게 설명하고 이를 이해하도록 가르치도록 하고, 또 믿음 안에서 모형을 보이는 사람들을 초대하여 이들로부터 간증을 듣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Thomson Randall는 그의 책 A standard of living adequate for children's spiritual development(1999)에서 아이들의 영성 개발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 있다.

첫째, 사람은 각자 자기의 환경과 경험을 통하여 영성을 표현하고 드러나게 된다. 아이들의 영성의 표현이 교사들의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억박지를 필요는 없다. 결국 아이들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점차 성숙된 영성으로 발전되어갈 것이다.

둘째, 아이들에게 영적 관찰, 경험을 표현할 기회를 주고 표현된 바를 칭찬하도록 하라. 아이들 각자의 발표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혹은 가족과 함께 표현할 기회를 함께 주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 영성 발전과 개발은 각 개인 스스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동체 내에서 특히 가족과 함께 신뢰, 안정, 공감과 이해의 분위기속에서 행하여져 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어른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지만 아이들이 특별히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아이들의 영성이 자라남을 기억하라. 함께 기도해 주고 격려해 주고 그 고통과 힘듦의 의미를 함께 명확화 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영성의 발전과 개발은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되어져가는 과정임을 명심하라. 아이들이 계속되어져 가는 그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가치와 의미, 개인적 친구 사이에서 혹은 가족적 관계에서 파생되는 기쁨, 슬픔, 고민, 안타까움, 힘듦과 어려움을 계속 파악, 관조하고 이를 승화하는 연속적 과정을 통하여 스스로가 발전됨을 인식시키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자각하고 알게 하라.

〈계속〉

hlee0414@gmail.com

영성개발로 학생들에게 옳고 그름, 삶의 방향과 가치관을 심어줘야
틀 잡히는 9세 전후엔 가족과 함께, 중등 땀 개인성찰적 신앙 시기
계속되는 과정...스스로 발전 인식시키고 하나님 함께 하심 알도록

표 1. 영성교육의 내용

관계의 영역	목표	내용
나와 하나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형성하기	하나님 경외와 사랑, 올바른 자아의식/정체성 갖기,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고, 순종하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영위하기, 온전하고 거룩한 삶 살기
나와 다른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른 사람을 비추주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주님의 제자 되기, 선한 일을 하기, 원수를 사랑하기, 하나님의 진리 전파/선교하기, 소외된 자를 돌보기
나와 다른 피조물과 관계	선한 청지기로 기능하기	문화명령 순종하기, 세계에 정의를 실현하기,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 나라에 심기, 지구를 사랑하고 보존하기

구를 통하여 나를 자각할 뿐만 아니라 창조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를 갖게 된다.

다시 말하면 영성이란 Nouwen이 주장한대로 자기 가치, 사회의 현실, 스스로를 옳은 방향으로 계속 인도하는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러한 영성 교육을 통하여 학습자는 자기 의미를 발견함으로 개인적 정체성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다.

둘째, 영성 발달의 특성을 우리는 잘 살펴보아야 한다. 영성은 다른 인간발달의 영역의 한 부분이지 아니나 다른 분야의 발달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기능을 한다. 즉 사람은 일생에 걸쳐 신체적, 지적(인지적), 사회적, 정서적, 도덕적 발달을 이루어가지만 이러한 발달의 근저 즉 가장 중요한 바탕은 영성이라는 사실이다(Barna, 2003). 그래서 Palmer는 영성은 모든 학과목에 다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

한다.

“내가 세상의 중심으로 느껴요. 밤에 하늘에 있는 달이 내가 가는 곳마다 나를 쫓아와요 모든 게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요” 혹은 “때로는 죽음이라는 것은 아마 몬스터가 사람을 데려가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얼마 아빠가 내 곁에 있으면 나는 괜찮아요”

이 단계의 신앙을 James Fowler는 직관적, 투사적(Intuitive-projective) 신앙 단계로 불렀다. 이때 아이들의 영성을 가르치는 효과적 방법 방법은 무엇일까? 이야기, 상징, 예시를 통하여 아이들에게 직관적인 경험을 하게 함으로 그들이 세계에 대한 의미와 하나님에 대한 경의감을 자극하는 것이 좋은 학습 방법일 것이다.

유아가 감성적, 추상적 시기라면 초등학교 때쯤 되면 아이들은 보다 구체적, 경험적 시기이며 아

다고 한다. 이 시기에 가장 좋은 영성 개발 방법은 가족들의 가치와 함께 하면서 삶의 의미를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삶의 가치를 다른 사람, 지역사회, 친구 및 세계로 확대시키도록 한다. 성경의 이야기, 예화, 상징이 아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세계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는 자세가 이 시기의 아이들의 영성을

영성 개발, 교회의 일차적 관심 영역

영성 발달은 점진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야 한다. 점진적이라는 것은 일평생에 걸쳐 계속 성화되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예를 들면 부흥회, retreat, 특별기도회 등)에 참여한다고 해서 영성이 특별히 발전되거나 변화되는 것은 아니다. 혹은 그런 경우가 있다 해도 그것은 그러한 특별한 프로그램 이후에 계속 발전되어야 한다.

둘째, 체계적이라는 것은 영성 발전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혹은 개인의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전 영역에 걸쳐 통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신명기 6:5-9에 모세는 이점에 대해 명확히 지적하고 있다.

영성은 믿음이 각 개인 전 영역에 달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아이들에게는 영성 개발을 의도적인 커리큘럼에 확산되어야 한다. 모세는 아이들에게 과거 하나님이 그들 조상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분명히 이해하고 이를 기억하도록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는 곧 유대인의 교육방법이기도 했다. 유대인들은 늘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 조상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그들의

발전시키는 좋은 기회가 된다.

사춘기 초기 특히 중등학교 시절의 영성은 믿음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전통적인 교회의 예배나 원칙을 그대로 수용하고 믿음의 가치를 비판 없이 받아들이는 시기이다. 물론 선과 악의 기준이 나름대로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타

하나님의 구원계획, 다니엘, 요한계시록, 성경 세미나

2017 상반기 세미나 일정

날짜	지역	장소	이름	전화번호
2/6-7	LA	오렌지카운티	김영대 목사	714-392-9576
2/9-10	LA	오렌지카운티	윤건상 목사	949-705-7879
4/20-21	서울	화곡축복교회	김요한 목사	010-8758-1191
4/24-25	강원도	영월교회	남상욱 목사	010-3422-5556
4/27-28	전남	전남지역	유동희 목사	010-9770-0110
5/1-2	창원	큰빛교회	강석규 목사	010-8706-9183
5/9-10	부산	부영교회	정성영 목사	010-3001-9257
5/11-12	부산	크리스천힐링센터	김종문 목사	010-3074-7974
5/15-16	충북	충주교회	윤민식 목사	043-272-2721
5-18	서울	등대교회	박래면 목사	010-9090-8291
5/22-23	대구	햇불선교회	장명석 목사	010-8372-5063
5/25-26	대구	말씀교회	김하림 목사	010-8938-8512
5/30-31	양산	영광교회	김종명 목사	010-3022-0690



강사: 라흥재 목사



도서주문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주소: 27-23 Bayside Ln, #1FL, Flushing NY 11358
Email: Gpscenter2014@gmail.com
미주크리스천신문 718-886-4400(NY), 323-665-0009(LA)(판매)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 제 2회 독후감 공모전 수상작

〈13면에서 계속〉

읽는 내내 같은 내용을 2번 이상 반복해서 읽어야 이해가 될 만큼 논리와 설명은 깊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통해 여전히 세상이 추구하는 성공과 인과응보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삶의 문제들을 해석하고 있는 스스로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또한 지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 속에서 성실히 일하고 계시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절망과 낙심에 빠진 적이 많았었구나 라는 탄식도 하게 되었다. 다만, 책이 이론적 설명에 집중하다 보니 현실적 적용 사례가 많이 등장하지 않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박 목사님께서 실제 목회 현장에서 이러한 개념들이 적용되는 사례들을 많이 들어주셨다면 더 설득력이 강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책을 다 덮고 나서 내 머릿속에는 하나의 성경구절이 스치고 지나갔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롬12:2).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밖으로 부르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사로잡혀 살아간다. 하지만 그 사실을 인식하고 매일매일 영적으로 세상과 싸우는 것은 쉽지 않다. 오

늘의 교회가 그 힘을 잃어가는 이유는 우리가 이 싸움을 충실히 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하듯이 생각과 관념을 뛰어넘으신 크신 하나님은 성실히 일하신다. 위기라고 느끼는 이 순간을 하나님의 손으로 영광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말이다.

이 책의 제목은 “직설”이다. 노 목사님의 음성이 제목에서 느껴지는 강한 어조가 아닌 따뜻한 권면으로 들리는 것은 이것이 아마 이 시대가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본다.

classickim@gmail.com

